

정통 언론 종합 시사 전문지

THE KOREA MORNING POST

| 2022년 통권 Vol. 239호 | www.thekoreamorningpost.pe.kr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대상

① 대회사·환영사·축사·인사말
② 각 부문별 대상 선정…43人 시상
③ 공로상 선정…38人 수상

대회사 송유영 / 메디슨그룹 회장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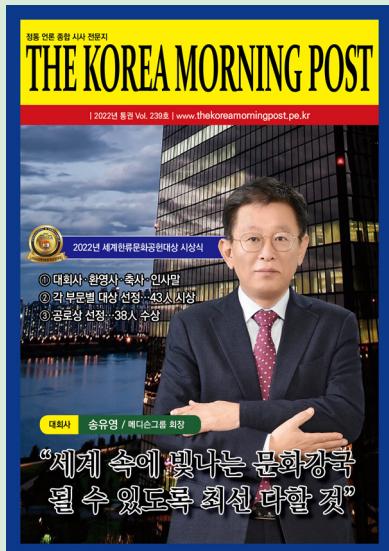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한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연결’이라는 크고 깊은 변화로
모두의 금융이 되겠습니다

CONTENTS

2022. 12 | 통권 239호 |



대회사 _ 송유영 회장 (메디슨그룹)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심사과정에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참여, 각 부문에서 가장 엄선한 심사를 거친 후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 위원회는 한류문화공현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과 문화 위상을 높이며, 각 분야의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과 단체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



- | | |
|----------------------|------|
| ① 대회사·환영사·축사·인사말 | / 14 |
| ② 각 부문별 대상 선정…43人 수상 | / 26 |
| ③ 공로상 선정…38人 수상 | / 70 |

정치

막오른 與전대 ‘룰 전쟁’



국제

중국·사우디 정상회담



경제

화물연대 파업 19년만에 최장기간



메트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력’



지방뉴스

- | | |
|---|-------|
| 오세훈 서울시장 _ ‘지옥철’ 9호선 과밀 줄인다 | / 118 |
| 방세환 광주시장 _ 베트남 주석과 협력 논의 | / 122 |
| 박형준 부산시장 _ “2030세계엑스포 3차 PT 압권이었다” | / 126 |
| 이철우 경북지사 _ 국회 찾아 국비 확보·신공항특별법 협조 촉구 | / 130 |
| 김장호 구미시장 _ “투자유치 30조, 예산 3조원 새 희망 구미시대 열 것” | / 132 |



발행인·회장 송원기
편집인 신현민
인쇄인 한길프린테크
논설위원 최성준

정치부 국장 강철우
경제부 국장 이순영
사회부 국장 박진성
지방취재부 국장 곽문호

등록번호 서울, 아52852 / 서울, 가50137
등록일자 2017년 4월 5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국회본관 175
전화 / 팩스 1533-1545 / 02-558-2289

The Korea Morning Post



송유영 / 메디슨그룹 회장

“경제 위기는 소통 경영으로”

소통은 ‘유능한 인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송유영 메디슨그룹 회장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송 회장은 건설업부터 절수기사업, 신소재 개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뿐 아니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향한다고도 한다.

특히 환경과 소통 경영을 이루어 오늘날 위기를 타개할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송유영 회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Q. 현재 메디슨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용인 동백 메디슨
타워는 어떤 곳인가.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는 한마디로 초대형 메디컬 전문 근린 상가다. 용인특례시의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입점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당초 기획된 곳이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까지 확장해 의료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허브병원이 되고자 했다. 특히 용인 세브란스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곳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춰 주변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맛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다.

대표 점포시설로는 약국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모든 병원 개원을 통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안전하

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돋고자 했다.

또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각종 음식점, 휴게시설 등 전문 편의시설이 두루 입점해, 주말과 휴일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서울 근교에서 온 가족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한데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는 용인 경전철 동백역, 어정역 도보 3분 거리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으면서 6차로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잘 드러맞았던 것 같다.

Q. 그렇다면 메디슨그룹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뭐였다.

젊었을 때 오랫동안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설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막연히 했던 것 같다.

당시 건설업은 오래전 경제적 기반이 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면, 현재는 인간의 일상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테마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현대건설을 그만두고도 이러한 생각들이 뿌리깊게 잔재해 투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시도했으며, 실패도 봤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다.

생각은 곧 길을 만들어 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약 15년 전 현재 메디슨타워 부지의 땅을 78억 주고 사게 되었다. 또 땅을 샀으니 뭔가를 지어 올려야 하는데 ‘테마가 있는 건물’을 올려야지 했던 그때의 생각을 타고 오르다 보니 메디컬 복합 센터를 구상하게 되었다.

Q. 평소에 의료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좀 더 설명해 달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 분명 누구나 아프고 나이들면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좀 더 고도화하고 차별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동네 병원은 많아도 의료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군데가 아파서 흘어져 있는 병원을 여기저기 이동해야 한다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점점 대형화 돼 가는 현실이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병원에 들렸다가 이왕이면 가족 또는 지인들과 약속을 할 수 있고 의료에 관한 일체 해결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건물을 올리기 전 이러한 의료산업 흐름을 조사하면서 ‘의세권상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용인 동백지구는 2020년 3월, 동백 연세세브란스병원 개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용인 동백 의료복합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에 따라 용인 동백 지구는



용인 메디슨타워 전경



대우 한강 베네시티 투시도



세브란스병원 SEVERANCE HOSPITAL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 장점

- ① 경전철 동백역, 어정역 도보 3분 거리!
- ② 더블 역세권 · 6차로 대로변 위치
- ③ 유동 인구 유입 우세

제약·의료기기·바이오 등 연관 산업군이 한데 모인 최첨단 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때 잘 맞아떨어졌다.

동백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총 755병상 규모를 갖추고 예상 직원 수 8,000여 명으로 의료진 포함 보호자, 내방객 등 유동인구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초대형 상권을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중심에 위치한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가 있다.

Q. '그래핀(graphene)'이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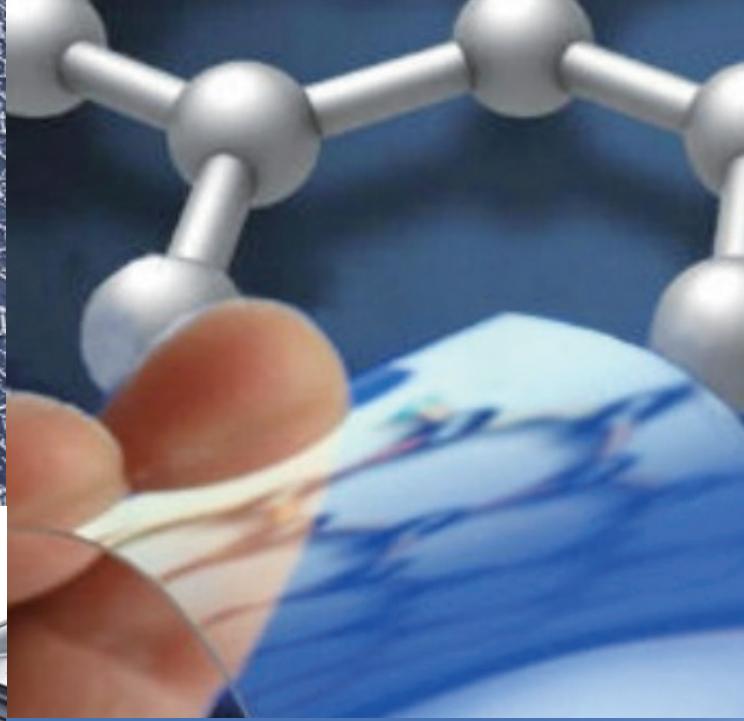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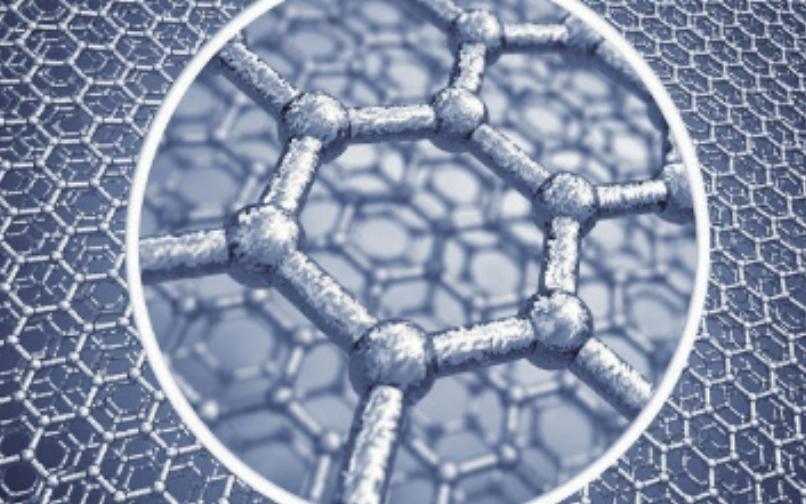
평소 소재개발에 관심이 많아 투자를 여러 곳에 해놓은 상태다. 그중에서 '그래핀'을 개발했다. 그래핀은 '꿈의 물질'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다. 흑연을 원료로 했고 이 흑연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평면들이 얇게 층으로 쌓여있는 구조로 보면 된다. 인용을 하자면 2004년 영국의 가임과 노보셀로프 연구팀이 상온에서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는 데 성공해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래핀은 좋은 특성은 모두 가지고 있다.

구리보다 100배이상 뛰어난 전기구도와 강철보다 200배이상 강한 강도, 매우 가볍고 97.7%의 엄청난 빛을 투과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차세대 신소재로서 꿈의 물질로 부르고 있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 시트 시장은 2021년부터 시장이 형성돼 2030년에는 약 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시장 형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그래핀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탄성이 뛰어나 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 그래핀은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한 소재다.

대개 높은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초고속 반도체에서부터 투명 전극을 활용한 휴대 디스플레이, 높은 전도도를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웨어러블 컴퓨터, 전자종이 등을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I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 동소체 중 하나로서
2010년부터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중 하나!
그래핀의 그물 구조 때문에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면적의 20%를 늘려도 끄덕없다!

그래핀은 가볍기도 하고 내구성이 강한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비행기나 자동차, 건축자재에 사용된다. 가볍고 안전한 전투복과 방탄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탄소 섬유도 관심이 커졌다.

그래핀은 우리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발견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ICT 기업에서는 그래핀을 결합한 전자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LG디스플레이가 그랬다. 예를 들어 창가에 커튼 형식으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싶으면 구부러진 디스플레이를 펴서 시청할 수가 있게 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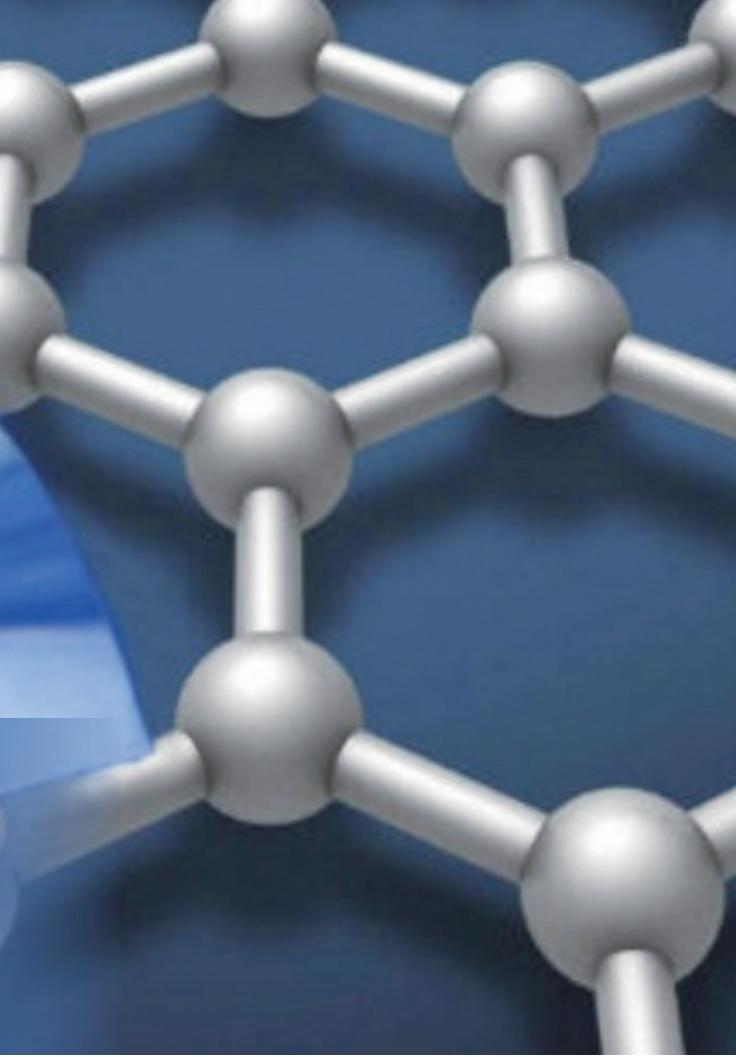
다른 분야로는 배터리가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할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에서는 배터리가 핵심 관건으로, 그래핀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다.

Q. 그래핀은 왜 상용화가 안 되나.

그래핀은 이렇게 많은 특장점을 지녔지만 분명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래핀의 기초 과학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다. 그건 바로 밴드갭(BandGap)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밴드갭은 일반 도체에서 에너지 준위차를 만들어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력을 흐르게 하는 원리다.

그런데 그래핀에서는 밴드갭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밴드갭과 관련한 그래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래핀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하지만, 막상 그러한 일은 그 기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이지 당장 실용화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그래핀의 탁월한 특성과 소재 활용 가능성에 관련된 엄청난 양의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때마다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래핀의 실용화를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래핀 소재의 생산과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 경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 그래핀의 대량 합성 기술, 산업적 기술 적용이 가능한 그래핀의 가공 및 기능화, 그래핀 소재 및 응용·가공 소재 품질과 특성을 구현하고 적용하는 방법 개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봤다.

Q. 주식회사 코리아엠에프씨(KMFC)는 어떤 회사인가.

그래핀 소재의 시장 선점과 새로운 응용소재시장 개척을 위한 회사를 전북에 본사를 두고 2020년 3월 30일

에 설립했으며, 3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주로 ▲저가·고 품질 그래핀 원소재 제조를 통한 시장 선점 ▲차량용 열 관리 등에 적용 가능한 그래핀 냉각수 제품 개발 판매 ▲그래핀 기반 방열·방청·음극재 재료 생산 및 판매 동아시아 그래핀 원소재 기반 시장 선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다. 현재 회사는 그래핀 적층 구조체 제조 기술 특허와 산화 그래핀 제조 기술 특허, 흑연 전처리 기술 특허를 낸 상태다. 향후 화학팽창제를 층간 삽입물로 함유하는 흑연의 광열-유도 박리(그래핀 원소재)와 그래핀 방열 패치의 제조 방법(그래핀 방열소재), 내연기관용 기능성 냉각수 첨가제 제조방법(그래핀 냉각수 첨가제) '노벨 특허'를 준비 중에 있다.

Q. KMFC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

현재 그래핀 소재 개발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다. KMFC에서는 그래핀 방열 소재에 대해 방열에 최적화한 그래핀 소재의 특성 제어 기술을 확보와 그래핀 소재와 합성해 방열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노 세라믹 제어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2021년 부산대학교 재료연구소와 그래핀 방열소재 공동개발 및 평가과제(기업수탁) 수행계약 및 공인 성능 인증 예정이다. 그래핀 방열 소재의 최대 수요처인 태양광 패널 후면 방열, LED 후면 방열, 기타 산업용 방열 관련 업체에 시제품 공급 및 공동 개발 추진 예정이다. 향후 LED 협회와 LED 방열 코팅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고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와 후면 방열 코팅 마케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 공조 냉각 관련 업체와 테스트 및 공동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그래핀 소재를 이용하여 냉각시킬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열에 적용될 그래



“소통을 통해 많이 베풀고 싶다.
이것이 경영 철학이면서 소통 경영을
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핀 소재의 최적화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핀 방열 소재의 개발 완료, 양산화 사례까지는 아직은 없다.

Q. 코인 상장 계획은 무엇인가.

회사 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마디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절차지만 회사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딸리는 경우 당연히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향후 수익을 내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성 요건 충족을 못 해도 정해진 기관의 심사 후 상장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역시 상장 이후 많은 조건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외에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상장한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 불특정다수한테 코인을 팔 수 없으니 우선 소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투자한 대가만큼 코인을 갖고 있으면, 상장이 돼 있으니 또 실제로 수익이 일어나면 코인을 살 사람이 많이 생긴다.

원래는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줘야 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투자해놓은 것이 수익이 나면 팔 수 있도록 상장시켜 놓는 거다. 상장은 일정상 3개월 정도 후에 상장될 시켜놓을 수 있다. 또, 상장사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투자하면 전환사채가 상장이 안 되면 원금 회수를 할 때 이자를 현금상환해야 하는데 상장이 된 것은 주식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현금으로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상장이 돼 있으면 투자자가 필요하면 현금으로 구매해 줘도 되고,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시장에서 거래해서 수익을 취해도 되고 점이 있어서 상장을 하는거다. 다만, 코인시장이 주식시장과 다른 것은 주식상장은 KRX에서 진짜 기술이 탁월하다거나, 탁월하더라도 들어가면 스펙상장을 시키거나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Q. 상장 후 자금 운용은 어떻게 쓰이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재 산업의 경우, 시설 투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1차 산업이라는 게 기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미국 건축을 비롯해 세계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자 부담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 이자가 저렴할 때 생산 원가를 잡아놨던 것이 이자가 올라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가 너무 취약하게 돼

있다.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신소재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산을 해서 수익을 내기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사도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신소재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생각이다.

Q.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는 늘 안 좋다고 하지만 올해 특히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물가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그 물가를 잡겠다고 전 세계가 난리지 않나.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불을 지폈고, 코로나19 장기화도 한 몫 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경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같은 사업자들은 원자재들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니 또 힘들게 된다.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떠들썩한 데 건설 쪽에 있다 보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채권 시장도 잔뜩 움츠리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이 경색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았지만,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경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건 더 있다. 환율은 오르고 국내 주식시장도 올해는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지인들을 만나면 외환위기 온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는 저성장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대부분 저성장 국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잘 이겨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

Q. ESG 경영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택이 아

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인 것 같다. 아직은 ESG 경영 일환으로 무언가를 거침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장하고 회사 몸집이 더 커지고 나면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투명한 경영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지금 그雷핀 소재 개발 등은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친환경 생산기술로 그雷핀의 혁신적인 가격과 성능을 증명할 뿐 아니라, 투자유치와 양산화를 이뤄 그雷핀 산업의 신산업생태계를 창출하려고 한다. 말만 거창하고 행동이 없는 경영은 하지 않을 생각이며, 친환경 공정으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은 'E'에 해당하는 환경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한다.

Q.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경영 철학은 뭐 별거 없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소통경영은 더 중요해졌다. 회사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소통경영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완성하는 첫 단계이면서 마지막 단계로 봐야 한다. 요즘 말로 소통에 진심이고 싶다. 소통은 유능한 인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에게 베풀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자는건데, 사실 요즘은 변화도 빠르고 생각도 빨리 빨라 평소 소통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으면 올바른 문화라는 것을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소통'을 통해 많이 베풀고 싶다. 이것이 '경영 철학'이면서 '소통 경영'을 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송 유 영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 세계한류문화 공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무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펜데믹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진 책임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자리는 수상자 여러분의 영광된 자리이고, 한류문화가 세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노력과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앞으로 문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상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류문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심사과정에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가장 엄선한 심사를 거친 후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는 한류문화공현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과 문화 위상을 높이며 각 분야의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과 단체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상식을 통하여 이러한 분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상식이 빛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잇는 민간 차원 가교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



한류신문·인터넷한류신문 회장
이 왕 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류문화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류신문 회장 이왕신입니다.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 송년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식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비록 세계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제한적으로 열려 있지만, 교류 증진을 향한 마음 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한류신문사는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고 발전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감염병의 고통속에서 벗어나 세계 한류문화 교류가 예전의 활기와 역동성을 되찾아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 또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례없이 혹독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이 길고도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온기가 더 절실합니다.

사랑의 온정도 전달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한류신문사는 세계의 소통과 화합의 실마리를 문화로 보고 민간 교류를 통한 협력과 소통으로 세계 각 나라의 문화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계을 잇는 민간 차원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 한류문화와 그 따뜻한 온기가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은 흐른다”



전 대통령 권한대행
前 국무총리

황교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펼쳐지는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K-팝, 영화, 스포츠 등이 동남아와 세계 각지에서 인기리에 소비되는 한류문화는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줄기의 빛이자 희망이 되어 삶의 활력소가 되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아하고 우수한 문화를 꽂피웠던 삼국시대가 한류문화의 원조임을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선진 경제는 물론 영화·음악·미술·스포츠·산업디자인 등 한류문화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에서 16강 진입에 그쳤지만 대표 선수들의 투혼 또한 전 국민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스포츠를 통한 한류문화도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런 한류문화의 한 축이 된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류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준비된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을 기획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 주신 <한류신문> 이왕신 회장님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류문화가 세계인들속에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류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前 정무장관

박 철 언

문화는 국력에서 나옵니다. 나라의 힘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의식주와 생활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생활이 전통문화와 함께 한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세계 어느곳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발전에 걸맞는 문화 홍보를 통하여 국가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류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2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은 수상자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자 한류를 부탁드리는 자리입니다. 1990년 말에 체육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체육청소년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임명되어 문화에 대한 국가의 일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한류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체육에서도 많은 세계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대상을 받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는 경우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갖춘 수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공현대상의 부문별 종류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한류의 범위와 방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증거입니다. 각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갖게 된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한류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기를 고대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한류 창출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대한황실진흥원 명예이사장

정근모

지구촌에 한류문화의 무궁한 용성이 펼쳐지는 앞날의 감동을 기대합니다. 한류문화의 발전과 확산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께 경의와 감사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과거 위대한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찬란한 문화는 인류에게 값진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류는 세계 문화로 거듭나야 하며 우리 세대와 후손들이 이를 위한 노력과 사명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한류의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여야 합니다.

오래전 선조들이 인류문명의 개화기를 펼쳤듯이 우리 세대는 인류공영의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시대를 준비하고 펼쳐나가는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인류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원자력에너지를 가장 완벽한 안정성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능력이 보유하였고, 이를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문명 역시 ‘과학기술 한류’라고 할 수입니다.

자아가 남달리 강하고 독특성, 창발성, 신속성, 실용성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지닌 우리 민족은 의, 식, 주, 문화, 예술 등 기존 한류를 바탕으로 ‘신 한류’를 창출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존의 한류문화에 미래를 위한 과학 기술 한류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일류 국가로 성장될 것이며, 지구촌 신문명의 시대를 견인할 것입니다.

세계 한류문화에 공헌한 분들을 발굴 수상하는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던 것은 ‘단결된 힘과 정신’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장 경 동

우리가 어렸을 적에 외국에 한번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한번 외국에 다녀온 것이 훈장받은 것처럼 자랑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보고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몇십년 전의 일입니다. 백년도 되지 않은 세월에 우리는 우리의 한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계한류공현대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세월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는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까지 담아 세계인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한류의 정신이요 문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이겨내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상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도 여러분의 노력이 열매로 맺게 된 결과입니다.

저도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침뱉지 않기, 차선 잘 지키기, 등 일상의 생활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반듯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이유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세계한류문화에 대한 공헌도 작은 시작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한번 나가지 못했던 나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과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세상에 전할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한류문화가 고급·풍성한 정신문화로 만들어줄 것”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문화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다차원적 개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 삶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창하고 넓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류문화는 바로 그 시작이 우리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함께하게 된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눔의 문화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류문화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공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모든 정신세계의 산물입니다.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를 들러싼 사회관계의 사고도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에서 탄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인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오늘 공현대상을 받으시는 각 분야의 주인공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자랑스런 일입니다. 소문을 내고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업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2022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한해를 돌아보며 자랑스런 일들에 대한 시상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 제 자신도 감격스러움을 느낍니다.

세계 한류에 공헌하신 여러분의 공로로 도약하는 2023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류문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더욱 고급스럽고 풍성한 정신문화로 만들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시상식을 위해 수고해주신 조직위원회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자긍심 느껴 감사”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대표

마태겸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한류문화공현 대상을 수상한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류문화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가 크게 활성화 되면서 외국에서도 쉽게 K-pop과 K-drama로 인해 한국의 영화, 의상, 전통음식, 화장품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마법같이 유명세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번이라도 접해본 전세계 많은 수의 사람들은 우리문화에 점점 더 깊게 빠져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된것은 오늘 이 자리에 수상자분인 여러분들이 힘씀이 계셨고, 음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에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써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류문화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어 격려해 주시는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은 일꾼들 발굴, 격려…밝은 사회 만들어갈 것”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 공동대회장

신 경 애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복지, 건강, 스포츠, 기업,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류문화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며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문화 강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류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사회와 경제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창의와 혁신 그리고 봉사와 희생으로 헌신해 오신 수상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도 당당한 민족, 문화강국 한류를 재탄생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을 통하여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봉사에 앞장서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민족의 원천사상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 총괄대회장

장 학

우리 한민족은 국조단군께서 하늘의 원천사상인 흥익인간 이화세계의 인본주의를 세우고자 나라를 세우신 아래,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위대한 민족, 자랑스런 민족입니다.

또한 한민족간의 분열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조들의 민족관과 역사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기틀과 세계 속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21C의 국제화 세계화 속에 국가 간의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 속에 <한류신문>과 한류전통 문화를 통하여 올바른 민족관, 국가관의 확립과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언론문화 창달(正論, 正筆, 正道)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세계속에 한류를 심고자 2007년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시대 흐름에 발맞춘 인터넷 한류신문을 통해서도 다양한 K-한류문화 전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류신문>은 아름다운 우리 문화와 역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 문화(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국악) 발전과 관련 업종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하여 동기 부여와 격려 등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이며, 더불어 선조들의 빛난 지혜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언론 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민족과 충, 효, 예, 의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숭고한 한민족의 원천사상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류는 국가 산업을 넘어 세계 문화로 자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인찬

한국 대중문화가 1997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중국 언론은 99년경에 ‘한류(韓流)’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풍이라는 말로 시작된 한류는 문화국책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의 산업을 넘어 세계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등에 업고 한글, 한복, 한옥, 한식, 한지, 한약(국약)의 모든 분야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은 21세기를 넘어 자랑스런 이 시대의 값진 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류문화 발전을 위한 공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다양한 갈등과 불능성 등이 세속적인 욕망을 포장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문화의 확산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구촌의 미래를 한류와 함께 달려간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바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주인공들이십니다.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에 오신 그 발걸음은 위대한 도약의 시작입니다. 그 주인공이십니다. 기쁨을 넘어 놀라움으로 표현되는 한류의 문화에 대한 공헌이야말로 잠시 잊었던 사람에 대한 따스함일 것입니다.

한류는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근접성을 세계에 전함으로 인종과 전통과 문화를 하나의 줄기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지구인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전세계가 모두 알게 하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한 세상입니다. 문화는 생활이 되었고 의식이 되고 행동이 되어 성별과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수상자들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계적인 한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World Hallyu Cultural Contribution Award 2022

반만년 역사가 만든 한반도의 신비가 함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아팠고 어느 날은 슬펐고 어느 시간은 아름다웠습니다.
21세기의 이 땅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한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글(한글), 우리 옷(한복), 우리 먹거리(한식), 우리가 눕는 곳(한옥),
우리가 쓰는 곳(한지), 지구촌의 광장입니다.
한류문화를 담는 푸른 빛의 웃음으로 한류는 이 시대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천년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한류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분야! 어느 방향! 어떤 모양도 우리는 세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에 귀하의 위대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영원하라!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빛나라! 한류의 꿈이여!

| 행 | 사 | 개 | 요 |

행사명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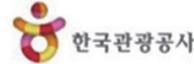
행사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오후 2시 ~ 6시

행사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주최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조직위원회

주관 한류신문 대한황실진흥원 검찰연합일보 HWANSIN BIO 환신바이오

후원



메디슨그룹, (사)나눔과기쁨,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사)리멤버위원회, (사)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사)비바코리아, (사)한복단체총연합회, 세종국어문화원, (사)서울예능인노동조합, (사)국제드론스포츠위원회, (사)청소년문화원, (사)한국무예진흥원, 큰샘나라엔터테인먼트(주), 국제모델총연합회, 한류교향악단, DMZ평화오케스트라, WKC세계한류대회조직위원회, (주)그린수소에너지, 미국스텐튼대학교(퓨리온), (주)솔트리, (주)악선식품 마임, (주)더채움, The Games Of Nomaoic Asian Tribes 아시아 유목민족들의게임 / 키르기스스탄, (사)특별경호총연맹중앙회, YK그룹

언론사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국민일보, 더조은신문, 세계연합신문, K국회뉴스, 한중기자총연합회, 신화신문사, 한국연합신문, 서울코리아더연합타임즈, 경경종합신문, 헤드라인코리아저널, 식약저널, 행복한 삶, 인뉴스25, 낙타방송, ihbc한류방송, IBS중앙방송, 경찰연합신문, 크리스천뉴스, 특수경찰신문, 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2호 hallyunews@daum.net



한옥 목수(대목수)로 ‘한옥의 발전’과 ‘보급’에 일조



전통직업전문학교 교장

이종은

한옥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지금도 우리의 것이 된 주거지다. 그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1992년 경기 인천 기능대학에서 생태 건축 국내최초연구소를 개소한 인물이다.

이듬해인 1993년 한옥학교를 개교하였고 1998년에는 한옥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삼척시와 평창군에도 제2, 3의 학교로 이어져 설립되었다.

지금은 5,500명의 대목수를 배출하는 한옥학교로 성장하였고 전국에서 한옥목수(대목수)로 한옥의 발전과 보급에 일조

하고 있다.

그는 국내 최초 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협의하여 목조건축의 높이 제한(3층 한계)을 정리하였고 한옥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위원장으로 한옥의 표준을 만드는데 함께 하였다.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로 제한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운 현행법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한국 최초의 한옥 호텔인 강화도 한옥호텔 조감도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 깊게 심겨진 얼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다. 우리에게 한옥의 의미는 단순한 거주의 형태가 아닌 바로 조상의 숨결이다. 편리한 현대식 형태에서 느끼지 못한, 들을 수 없는, 자궁의 소리같은 편안함이 널려있는 한옥의 지킴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 세계의 한류에 그를 초대하고 그 고마움과 위대함에 존경을 더한다.



“한복 美 홍보 위해 동분서주…50개국 대사 옷 패션쇼 진행”



(사)한복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춘섭고운우리옷

이 춘 섭

“한복에 담긴 깊은 뜻은 알면 알수록 새로워”

우리의 자존심, 한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어 생계도 꾸리면서 늙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춘섭 대표는 서른일곱에 한복과 그렇
게 연을 맺었다. 당시 북문에 유일했던 한
복학원에서 꼬박 12시간을 개인 트레이닝
받기를 3년, 바지·저고리는 물론 제일 어렵
다는 두루마기 바느질까지 섭렵했다.

두루마기를 퀘맬 줄 알면 웬만한 궁중복
은 만들어낼 수 있다. 궁중복에 따라서는

고증 받아 만들기까지 수년이 걸릴 만큼 섬
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조심스레 보여주는
궁중복에서 한 땀 한 땀 쌓인 그의 정성이
느껴진다.

(사)한국전통한복문화원 회장으로서 대
내외 패션쇼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
지만 그는 지금도 한복 공부를 계을리 하지
않는다. 한복침선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
면서도 강사로서 더욱 당당해지고 싶은 마
음에 공모전 참가 지원서를 냈다.



이춘섭 디자이너가 만든 한복

이춘섭 회장의 모든 도전에는 한복을 올바르게 알리고 지키려는 우리 것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숨어있다.
“벌써부터 걱정”이라지만 리포터의 마음속엔 잘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자리 잡는다. 고집스러울 정도
로 전통을 고수하는 그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한복에 깃든 정신과 깊은 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으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최초 복간본 학술책임자로 복간”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김 슬 옹

김슬옹은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22년 한글·한국어 동영상 유튜브 공모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35개국에서 307편이 응모돼 한류 한글 확산에 크게 기였다. (수상작 상영관: klfesta.org)

2022년, 세계 최초 훈민정음 해례본 손바닥책(한국어, 영문) 고급 선물용 책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여 한류의 원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책 소개: smartstore.naver.com/soheeyeon/)

고1 때부터 한글운동을 시작하여 45년간 한글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의 최초 복간본을 학술책임자로 복간하였다.

훈민정음 관련 세 개의 박사학위(상명대, 동국대, 연세대)와 『조선 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우수학술도서)와, 『한글혁명』, 『위대한 세종 한글』 등의 101권 저술을 통해 훈민정음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세종학과 융합인문학』 등 세종 관련 저술을 통해 세종학을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김슬옹 작가는 2018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글 으뜸 지킴이’로 뽑혔고, 〈대한민국 한류대상〉, 〈세종문화상 대통령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또 한글 관련 박사 학위를 3개나 받았고, 어린이를 위한 많은 글을 썼다. 현재 세종 국어문화원 원장, 한글학회 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 교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토속음식과 궁중음식, 별미의 환상적 궁합”



아리아리郎 회장

이정우

복잡한 도심 서울을 벗어나 자동차로 1시간 남짓만 달리면 공기도 다르고 한적한 여유가 반기는 인천 송도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의 맛과 멋을 담은 아리아리郎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같이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아리아리郎을 적극 추천한다.

아리아리郎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부터 궁중요리까지 고루 만나볼 수 있다. 메뉴 이름에 ‘수라’가 포함돼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죽순 홍시 냉채, 민물새우탕, 들깨버섯탕, 단호박감자경단, 산마샐러드 등의 메뉴가 오감을 자극한다. 잘 차려진 한상차림에 흠뻑 빠지다 보면 ‘열 임금 안 부러운’ 기분이 든다.

특히 이곳의 한정식 코스는 생선회, 구절판, 자연송이너비아니, 황태구이, 신선로, 전복초, 육회, 간장게장 등 다양한 요리로 구성돼 있다. 흑임자죽 등 영양죽과 연어샐러드, 삼색전 부꾸미, 튀김 등 중간 중간 입맛을 돋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코스의 마무리는 죽염대나무통밥으로 시골된장, 양념장으로 쓱쓱 비벼먹는 비빔밥이다.



토속음식과 궁중음식의 궁합 <아리아리郎>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정식 전문점 <아리아리郎>은 지난 1997년 7월 오픈 이래 13년 동안 송도 최고의 명소로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히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토속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주저 없이 <아리아리郎>을 찾는다.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즐겨 찾는다니 <아리아리郎>은 가히 인천 최고의 명소라 하겠다.



“열정과 집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답했다



목사 · 가수

윤향기

윤향기는 대한민국 1세대 싱어송라이터다.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다양한 삶 속에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행복과 낭만과 눈물을 모두 주었던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련한 세월이 흘렀다.

한국 최초의 록밴드 그룹 키보이스의 멤버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어떻 하라고〉를 부른 가수로, 작곡과 편곡가로 목회자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사람이다.

뮤지컬 배우가 된 윤복희를 동생으로,

제 아들을 CCM 가수로, 모두 음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은퇴목사다. 1986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도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 돌아왔다. 예음교회를 세우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명예회장이 되었다.

그의 열정과 집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답했다. <여러분>이라는 ‘가스펠송’을 대중화시킨 발군의 실력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큼 탁월한 것이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절망의 병실에서 기도의 끝을 보았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찾게 된 것이다.



윤향기를 보면 입가의 미소에서 풍기는 ‘나는 행복합니다’의 부드럽고 당당한 소리를 들게 된다.

세계한류문화의 한 자리에서 그는 벌써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어 있다.



“학원 못다니는 학생들 위해 ‘연기 체험’ 무료 학습 봉사”



남서울실용전문학교 부학장

한윤경

한윤경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 한상수 부장검사의 큰 손녀로 대구에서 태어나 중학교시절부터 불우한 교우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주위의 친구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한 교수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전교 차석으로 입학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1985 영화 ‘19세 생머리’(고영남 감독) 조연으로 데뷔하여 각 영화·드라마에 출연하였고,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홍보대사

로서 실질적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봉사를 하였다.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사와 양천구청 소년·소녀 가장들을 관람하게 하는 등 영화 배우로 활동하기까지 ▲1986 안양예고 졸업 ▲1993 캐나다 DAKOTA College 드라마과 수료 ▲2003 계명대 일본학과 졸업 ▲2006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대중문화학 전공) 석사학위 ▲2015 고려대 대학원 기업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홍콩 배우 임달화 주연, 영화 <리틀큐> 시사회



아산총무국제액션 영화제

▲1985 영화 <19세 생머리> (고영남 감독) 조연 대뷔 –국도극장 개봉 ▲1986 한·일합작영화 <天平의 詩> 주연 ▲1987 영화 <녹색유희> (지상학 원작) 주연 ▲1988 영화 <山불> (차범석 원작) 주연–중앙극장 개봉, 영화 <백색시장> 주연 –중앙극장 개봉 ▲1989 대종상 여우주연상, 노미네이트 영화 <근신> ▲1991 KBS 아침영상드라마 <꽃피는 등지> 출연 ▲1995 MBC 청소년드라마 <사춘기> 출연 ▲1998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출연 ▲1999 대구시립극단 연극 <우리읍네> ('Our Town' 번안극) 주연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3 SBS 대하드라마 <왕의 여자> 출연. 그 외 영화, EBS 드라마, 홈쇼핑 게스트 등 다수 출연 ▲2006 KBS 아침드라마 <사랑해도 괜찮아> 출연 ▲2008 (현) 한류문화연구소 소장 ▲2009 강남경찰서 홍보대사 ▲2018 남서울실용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국제드론스포츠위원회 이사장으로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면서 숱한 고난을 거치면서도 백조와 같은 고고함을 잃지 않고 드라마 같은 영화속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



쇼다운 국대 ‘이종경’ 세계 제패…사상 첫 국제대회 금쾌거!



쇼다운 국가대표
취리히 오픈 금메달리스트

이 종 경

1977년 시각장애인이었던 캐나다인 조 루이스(Joe Lewis)가 처음 만든 이후 그의 동료인 패트릭 요크(Patrick York)와 함께 규정 제정 및 테이블을 제작하면서 틀을 완성한 쇼다운 경기는 1980년 처음 이뤄졌고, 이후 유럽과 북남미 등지에서 확산되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 10개국, 5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김창현 감독, 이선영·이호국 코치를 비롯해 이종경, 김장훈, 장유경 선수가 출전했다.

26일 결승에 진출한 이종경 선수는 슬로

바키아 스텝판 마르신 선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연달아 세 세트를 이기면서 남자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 쇼다운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로 2018 리투아니아 국제쇼다운대회, 2019 이탈리아 IBSA 세계쇼다운선수권대회에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참가한 국제대회 3번째 만에 이룩한 성과다.

김장훈 선수는 총 29명 중 8위,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장유경 선수도 총 24명 중 7위에 오르는 등 선전하면서 대한민국 한류를 심었다.

이종경은 ㈜엔비젼스 어둠속의 대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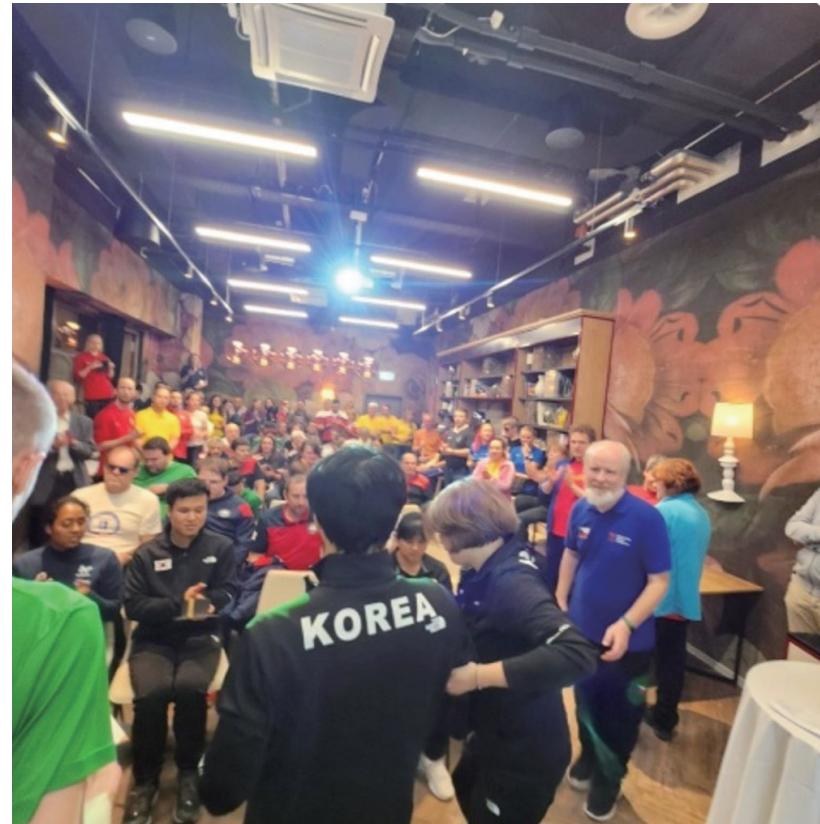
11월 26일 ‘2022 스위스 쇼다운 취리히 오픈’ 남자부 결승전에 우승을 차지한 이종경(남, 만 38세) 선수 경기 모습



서 로드 마스터(가이드)로 현재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헬스키퍼로 근무하고 있다.

시력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학구열을 가지고 강서대학교 신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립서울맹학교를 17기로 졸업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인터넷 정보관리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쇼다운 동호회에서 강습회를 통해 입문하여 센터 주말리그 마이너리그 우승과 메이저리그를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처음나간 국제대회 첫 우승을 한 그의 집념과 열정은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체력조건이 월등한 유럽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결과도 대단하지만 사실 제대로된 훈련지원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의지의 땀이 더 소중하다.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장비를 스스로 구하고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피나는 연습이 만들어낸 인간 승리의 쾌거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2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국내 쇼다운 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알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한류스포츠 부문에서의 대상이 그런 일에 일조가 되고 쇼다운이 한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화 적응하느라 혼돈… “정돈하라” 말씀 특효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인찬

- ▲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
- ▲ 백석신학대 학장 겸 목회대학원장 역임
- ▲ 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오늘날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emerging) 시대’라고 한다. ‘이머징’이란 말은 하나의 길(one way)을 가다가 교차로를 만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에 비유한 말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 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만났다.

그는 침상에 누운 지 여덟 해가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곧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자 일어나 자리를 떠난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

나는 미국에서 30년간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한 대학에서 기관장으로 섬기게 됐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일과 생활에 혼선이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 있어야 할지 참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한 삶이었다.

머리도 복잡하고 심장병도 생겨 여러 가지 일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었다. 이때 이 본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행 9:34)

“애니아야 네 자리를 정돈하라.”

복잡해진 생각과 혼란해진 삶을 정돈하는 말씀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생활을 정돈하니 그때부터 정신이 맑아지고 심장병도 치료를 받고 삶이 단순해졌다.

내려놓게 되니 삶의 의미를 도로 찾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교육 선교 사명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미래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섬기고 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삶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스무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 그릇을 먹는다 해도 한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 잠을 잘 때도 8시간을 잔다고 할 때, 8개의 침대를 가지고 한 시간씩 나누어 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침대 하나에서 8시간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다. 많을수록 부하고 많다고 해서 전부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단순할 때,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더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내려놓고 삶을 단순화하고 정돈하면 가는 길에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경기도 광주시장

방 세 환

희망도시
행복광주



376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로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의 명칭이 된 광주는 인구 40만의 도시다.

방세환 시장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인물이다. 그는 시의회를 거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통합도시계획 수립 ▲플랫폼 교통도시 구축 ▲초·중학교 신설 ▲초등학생 아침 식사 제공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영유아 맘케어 종합센터 유치 ▲노인/장애인/가족 통합지원 센터 건립(치매센터 지속추진) ▲어린이병원 유치 ▲'바로Day 행정서비스' 시행 등이다.

그는 세계속의 한류에 명품도시를 꿈꾼다. 12월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하고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상호교류와 관계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베트남 판로 확대 등을 모색해 광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세계의 명품도시는 역사와 민생경제가 어우러진 환경을 가지고 있다. 천년 문화 도시 광주가 세계한류문화의 꿈을 꾸는 이유가 충분하다.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천진암 성지, 신의희생가 등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을 연결해 가장 오래된 것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길, 세상에 하나뿐인 ‘광주 역사 둘레길’ 조성이 문화 대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 허브섬을 비롯한 폐어로드, 팔당 호반 둘레길, 자연 휴양림 등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진행 시기를 앞당겨 관광산업을 광주의 미래를 여는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자치단체장 공로부문으로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을 수상하는 방세환 시장의 세계 한류로의 발걸음은 오늘도 지치지 않고 뛰고 있다.

온라인 정책 브리핑
2022. 11. 30.

**출퇴근이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 행복광주**

Gwangju City Logo

광주시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수상자 ■ 35



“미국 명문대학교 연방 교육기관의 WASC 인증”



미국 스텐튼대학교 총장

김 광 호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 미국 스텐튼대학교 김광호 이사장

Stanton University(SU)는 1996년에 한국인 출신 김광호총장은 교육에 남다른 열정에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맞춤형 전문 대학교육기관으로 고등 교육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고등 교육의 학술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Stanton University는 학업, 직업 및 개인적 성공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비영리 공익 교육 기관이다.

교육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대학은 잘 준비되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의 우수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적인 교실 장비와 도서관 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는 최신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WASC 인증 Stanton University는 다음 위치에 있는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SCUC)의 인증을 받았다. 1001 Marina Village Parkway Suite 402 Alameda, CA 94501 510-748-9001

▲ 고등 교육 인증 위원회Stanton University는 고등 교육 인증 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회원

▲ 기관 승인Stanton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 교육국(California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권한 하에 캘리포니아 교육법 및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대학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94900에 따라 사립 고등 교육국(BPPE)으로부터 기관 승인을 받았다.



“신뢰받는 국기원이 되도록 과감한 개혁 이끌겠다”



국기원 원장

이동섭

- ▲ 1956년 생
- ▲ 국기원 태권도 9단
- ▲ 명지대 정치외교학 학사
용인대 체육학 학·석사
고려대 정치학 석사
국민대 법학 박사
- ▲ 제20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現 국기원장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다. 지금 BTS에 열광하는 세계인의 인기는 바로 50여년 전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가 만들어낸 열매다. ‘국기 태권도’를 입법화한 주인공이 바로 이동섭 국기원장이다.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무예 태권도의 활성화에 선도 역할을 해왔다.

국기원의 태권도 세계화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74년 시범단을 창단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불모지에서 태권도의 짹을 틔웠다.

상생하는 태권도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저개발국 40개 국가에 41명의 사범을 파견하고 있으며, 저개발국 태권도인 초청 연수 사업 등으로 구체화, 다양화 하고 있다. 국기원의 태권도 세계화 정책은 수련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태권도는 무예와 스포츠를 넘어 이제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가브랜드로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기원도 오래 전부터 태권도 문화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무예 태권도 활성화와 전 세계 태권도인들 화합의 축제는 물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이 태권도의 모국인 한국과 태권도 본산인 국기원을 방문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돼 태권도의 문화관광 상품화와 한류 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 시범단의 외국인 대상 정기시범문화 공연을 통해 태권도의 문화관광 산업 제고와 태권도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동섭 국기원장이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前 국회의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태권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열심이다. 그건 그가 추진하는 사업에 명분과 힘, 실리가 실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기원에 입성한 날부터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한류문화의 바탕에서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태권도의 힘은 오늘 한류의 커다란 밭침이다.



“문화·예술 우수성 국내외 널리 알리는데 기여”



(사)사랑의쌀 나눔본부중앙회 이사장

이 선 구

이선구 이사장은 강남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강남구 전체의 푸드마켓의 통합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10년 째 강남구 소외계층을 연간 4,800 세대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사랑의 배달부로 세계한류문화공헌에 그 높은 이름을 새기고자 한다.

2007년 설립 후 2009년부터 정부나지 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통하여 서울역 노숙인들을 시작하면서 사랑의쌀 나눔본부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부평역, 주안역, 인천 서구, 인천계양구) 및 전북지부(전주, 군산, 정읍, 고창)에서 지난 16년 동안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나 명절기간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랑의 빨간밥차’를 운행하여 노숙인, 홀몸노인, 쪽방촌노인, 장애아동시설 등에 무료급식, 쌀,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들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여 공익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2009년 보건복지부 승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랑의 빨간밥차’를 운행하며 홀몸 노인, 노숙인, 쪽방촌거주노인, 장애아동 시설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 봉사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곤란한 시기나 명절에 무료급식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무료급식을 대체식 도

시락을 만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의 빨간밥차’를 통하여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 및 생필품을 나누고 지원하는 한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공익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 빨간밥차는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 서구 및 계양구 급식장소에서 매주 평균 2,000여 명의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생필품 나눔을 통하여 소외계층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촌사랑의쌀 나눔재단에서는 현재 국내 90개 지역, 해외 56개 국가에 ‘지구촌 사랑의쌀독’ 지부를 세워서 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쌀, 생필품, 무료 도시락을 제공한다. 앞으로 계속하여 국내는 1,004개 지부, 해외는 100개 국가 이상의 지부를 세워서 수백만 명의 소외계층을 도울 목표이다.

노인행복지원센터에서는 본부 4층에 계양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센터를 통하여 계양구 지역의 어르신 100여 명에게 화, 수, 금 한 주에 3번씩 문화 활동 및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백 여 편의 작품 중…‘역사소설’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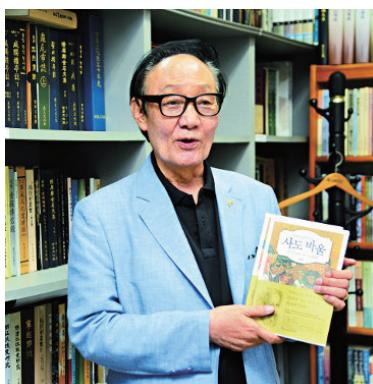


대조영·연개소문·들불 작가 / 소설가

유현종

그는 60년 동안 작가생활을 하며 꾸준하게 지금도 작품을 쓰고 있다.

요즘은 “칠지도(七枝支刀)”를 쓴다. 칠지도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에서 후왕(侯王)으로 있던 왕자에게 보낸 검이다. 그 검은 당시 왜국을 지배하던 왕권(王權)의 상징이다. 일본 상고사는 백제사나 다름없다는 시각으로 다뤄지는 작품이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불·유현종문학관>에 소장 전시될 작품들이기도 하다.



나이 80이면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쉬어야 할땐데도 작가 유현종은 붓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유현종 작가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작고한 작가, 생존하고 있는 작가를 통틀어 누가 가장 많은 작품을 쓰고 남겼느냐는 조사이다. 유현종 전 작품은 2백 여편에 육박하며, 그 중 장편소설만 1백 여편이 넘는다고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백 편의 장편 가운데 절반인 백여편이 역사소설이다. 왜그렇게 역사소설에 집중했을까. 그렇게된데는 그럴만한 계기가 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전북 완주이며 자란 곳은 익산(益山)이다.

구한말. 이렇게는 살수 없다는 헐벗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동학란(東學亂)은 그의 고향도 휩쓸리고 그의 가족들도 연계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 언젠가는 소설로 써보고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

그가 그 소망을 이룬 것은 작가된지 10년만이었다. 문예지 <현대문학>에서 장편으로 연재를 부탁했던 것이다.

장편 <들불>이 태어난 것이다. 유신정권 시절이라 판매금지를 당했어도 지하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들불>은 민본(民本), 민권(民權)운동의 실체를 보여주며 판소리, 민요, 탈춤, 농악 등 당시 70년대 대학가에 최초로 <내 것> <우리 것>이 뭔지 불을 붙여 소개한 계기를 만들었다.

<들불>이 성공하자 동아일보에서 연재

청탁이 들어왔다. 당시 편집국장은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S씨였다. 무얼 쓰려느냐 하고 묻자 그는 ‘연개소문’을 쓰려한다고 대답하자 그의 두 손을 갑자기 꽉 잡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역사 최초로 군사 쿠데타 일으켜 독재정치를 하다가 못난 아들 3형제를 두어 결국은 나라까지 망해 먹은게 연개소문 아닌가. 3년만 쓰시오.”

그래서 왜 3년이라 하느냐니까 그는 “3년 후면 박정희 정권도 무너질테니 하는 말이요”라고 하더란다. 4년이 되어 연재 마치고 전 8권으로 출판을 했는데도 박정권은 멀쩡하더란다. 오히려 박 대통령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회도 빼지 않고 읽은 애독자였다.

“어렸소? 인간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평가가 나는 거지요? 강물이 흐르면 청탁(淸濁)이 함께 흐르지 맑은 물만 흐르지는 않지요? 살아 생전에 이룬 업적이 공(功)보다 과오(過誤)가 더 많았다면 역적이고 과오보다 공적이 더 많았다면 충신이며 영웅 아니요? 연개소문은 어느 쪽이요?”

“그는 충신이며, 영웅입니다.”

그의 대답에 박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공감하더란다. 연개소문은 그 후 60만권, 480만권이 나갈 정도의 밀리언 셀러가 되었고 일본에서도 번역이 되어 일어판도 잘 나갔다고 한다.

그 당시 유현종 작가는 35세였다.

그 이후 <대조영>을 비롯하여 <천산북로 고선지> <임꺽정> 등 15년동안 신문연재 소설을 썼다.



“경북도민 모두가 도지사”라고 동참 호소



경상북도 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지사(민선 7~8기) 3선의 국회 의원을 역임하고 정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우 도지사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은 지금 시작이다.

그는 경북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그 이웃과 함께 꿈을 키웠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경북 SOC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경북은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원자력 친화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품고 있는 경북이 큰 호재

를 맞고 있다.

경북은 이런 기회를 살려 동해안 일대를 원자력과 수소 중심의 세계적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이라고 불리는 소형모듈 원자로(SMR)를 개발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주에 SMR 특화단지, 울진에 원자력기반 수소생산 실증 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가 꿈꾸는 ‘지방시대’는 어떤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 경북도민 모두가 도지사라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많은 지자체의 단체와 교류하면서 위대한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다.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말한다. 세계 한류문화에 경상북도의 놀라운 역량이 우리 모두를 기대와 바람으로 함께 하고 있다.



“태양광 소형풍력발전기와 코어(CORE) 코인 맞교환 p2p 발표”



(주)LCM에너지솔루션 회장

이 병 흥

“2023년 캐나다 CPC(SPAC) 상장, 초미에 관심 집중”

(주)LCM에너지솔루션 이병홍 회장은 Satoshi CORE '9월 메인넷 출시'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자수 5,500만명 돌파! 기념 행사에서 “사토시(Satoshi) 코어(CORE)는 시스템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많은 플랫폼을 경험해 보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은 처음”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병홍 회장은 LCM에너지솔루션에서 개발한 “일체형 태양광 소형풍력발전기와 코어(CORE) 코인과 p2p 맞교환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LCM에너지솔루션에서 개발한 일체형 태양광 소형풍력발전기는 세계 최

초로 탄소중립 마을을 만들어 낸 “여주 크라우드1 타운하우스에 독립형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교육과 친환경적 전력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생산을 하고, 여름, 겨울 전기세 없이 사용하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홍 회장은 “2차 전지의 틈새를 노린 사업 모델과 일체형 풍력, 태양광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세계적인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LCM에 너지솔루션과 블루애플자산운용사(자명)가 손잡고 캐나다에 CPC(SPAC) 상장을 2023년 3월 중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병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 직접 상장된 회사가 쿠팡, 그라비티 등 2개 뿐이다”라며 캐나다 CPC(SPAC)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늘사랑행복나눔, 김장김치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충청향우회중앙회 부총재
(주)산돌 회장

김 의 경

2일 동안 배추 1,000포기(550박스)소외계층에 전해

겨울철의 소중한 반찬이 되는 김장김치 하지만 소외계층에게는 담가서 먹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솜씨를 모아 김장김치를 담가서 나누어주는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늘사랑행복나눔봉사단>의 김의경 명예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 지난 12월 9일과 10일 양일 간에 걸쳐 화성산장에서 김장을 담가 지체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늘사랑행복나눔봉사단>은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 1,000포기와 무, 쪽파 등 양념을 공수해와 늘사랑 회원과 지역의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모여 이틀에 걸쳐 교

대로 양념 속을 만들고 절인 배추에 속을 넣어서 총 550박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담근 550박스의 김장김치는 지체장애인, 환경장애인, 경로당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으며, 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8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십시일반 각출해 비용을 만들어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김다현(가수)양은 배추구입에 많은 힘을 보탰으며, 가수 서지오도 김장김치 담그는데 한몫을 했다.

또한, 황교안 前 국무총리의 부인인 최지영 여사, 유인애 강북구의회 의원, 박상구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국장도 동참해 김장김치를 담그고 나르느라고 땀을 흘렸다.



김장김치 담그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김의경 명예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10여 년 이상을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회원들과 뜻을 모아서 김장김치를 담가 나눠주게 되었다.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에게는 김장김치로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삶의 용기가 생겼으면 한다. 회원들도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한다. 이 세상이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과 이웃과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회원들이 담근 김장김치를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조 한류’ 국제모델총연합회 김종훈 회장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김 종 훈

국제모델총연합회 김종훈 회장은 지금 까지 세계 180여 국가에서 ‘UN평화모델 선발대회’와 함께 선교와 각종 축하무대, 시낭송, 모델 & 모델워킹쇼, 스마일워킹쇼 등 세계 평화와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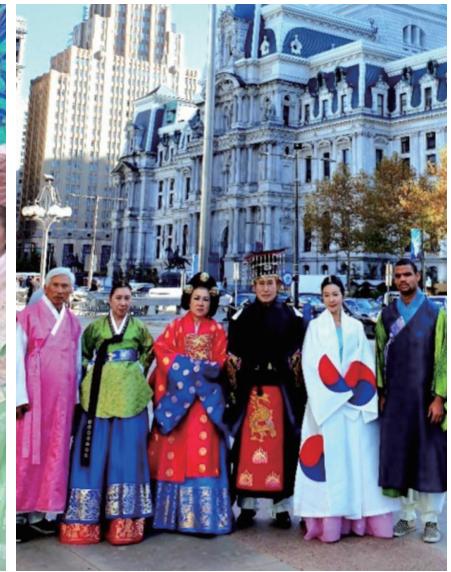
국제 모델총연합회 주최 ‘UN평화모델 선발대회’는 세계 평화와 인류행복을 기원하고 우리나라 전통 한복의 미(美)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사절단으로 활동하게 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편 김종훈 회장은 1974년 제1회 한국 모델 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모델에 입문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틀어 롯데백화점, 케임브리지, OB맥주, 제일모직, 시티즌 시계, LG 모노륨 등 굴지의 브

랜드 광고 모델로 왕성히 활동했으며, 현재 까지도 국내외 다양한 국제 교류문화 행사에서 가수 겸 모델이자 공연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8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초 미얀마 정부 초청 한미 문화예술 공연에 한국-미얀마 양국의 현대 및 전통문화축제에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그는 39년 동안 국내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미얀마, 필리핀 이외에 다양한 국제공연문화 행사(선발대회 및 공연)와 총 2,000여 회의 패션쇼와 헤어쇼, 한복쇼, 랜제리쇼 등을 직접 주최하고 출연했다.

또한 국내 여러 단체 및 러시아, 중국, 미국, 필리핀 뿐 아니라 1992년부터 2012년 까지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패션,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예술 콘텐츠 교류를 통해 한류 열풍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모델총연합회는 그동안 메카 모델선발대회(14회), 썸머 모델대회(12회), 월드유니버시티 대회(서울, 강원), UN 평화모델선발대회(4회)을 주최하고 진행했다. 이같은 대회를 통해 유준상, 구본승, 신애, 전수연, 백지영, 황제성 등 가수, 탤런트, 개그맨 등을 배출하고 알리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끊임없는 활동 통해 국제선교에 탁월한 능력 보여”



합동총회유럽1호 선교사
샬롬나비 기독학술원 선교 자문위원

육 호 기

합동총회 1호 유럽선교사

목회자로 1976년 합동총회 1호 유럽선교자로 파송되어 독일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첫 선교지는 해센주 주수도 비스바덴(Wiesbaden)이었고 1977년 5월 25일 비스바덴(Wiesbaden) 한인교회를 독일 애굽선교회 본부 건물 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1978년 5월 3일에는 뷔르크부르크 한인교회를 개척하였고, 1987년 5월 터키 이즈미르(Izmir) 한인교회를 세웠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독일 선교사역 35년 동안 교회 4개 교회를 세우고, 세 교회(비스바덴, 하나우, 뷔르크부르크 교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공산권 선교에도 진력하여. 성경을 보급하였고, 독일 개신교(EKD)의 초청으로 매년 남북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세례 약 2천여명 이상과 터키인에게 24명에게도 세례를 주고 세례증명서 발급해서 재판을 통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케 하였다.

독일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규합하여 노

회를 조직하고 후에는 유럽예수교 장로회총회를 설립하고 초대 종회장으로 피선되었고 2011년 6월 1일에서 2016년까지 인도 선교사로 재 파송받아 인도 콜카타(Kolkata)에서 선교사역을 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역 활동

2016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필리핀 보홀(Bohol) 섬에서 현지인 보홀 참빛교회를 섬겼으며 2019년에서부터 현재 롯 선교회 지도 목사, 샬롬나비 기독학술원 선교 자문위원. 미 코헨대학, 크레이티브 대학 AACI(아세아 아프리카 국제 캠퍼스 선교)선교대학원 총장으로 있으면서 유튜브 방송과 구제와 긍휼사역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 북부지역 히밀리아 산밀에 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담요 보내기 운동으로 담요 2~300개를 보내었고, 올해에는 독거인들에게 쌀 나누기와 노숙인, 소외계층인들에게 외투한벌. 내복, 양말 나누기, 연탄, 쌀 나누기 등 계속 긍휼 구제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한류 국제선교 부문에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선교에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정통 트롯트와 다른 조항조 만의 특별한 매력 발산”



가수
조 항 조

누구나 무명시절이 있다. 단지 그 시간이 짧은 사람과 긴 사람이 있을 뿐이다.

어쩌면 무명으로 일생을 살다가 긴 세월 이 흘러 무명을 벗고 그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그 시간과 싸워야 하는 것은 철저한 자신의 뜻이다.

조항조는 무명 생활만 28년 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힘들게 살아야 했다. 명품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정통 트롯트와 다른 조항조 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기까지 견딘 것은 자신의 노래였다.

그는 1976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록 음악을 첫 시작하여 2년 후 1978년에 그룹사운드 서기 1999년의 리드보컬로 <나 정말 그대를>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가수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에 발표한 <남

자는 이유로>(작사 : 김순곤 / 작곡 : 임종수)가 빅히트를 치면서 인기 가수로 거듭났다.

이후 슬로우 비트의 발라드와 트로트를 섞어놓은 듯한 음악들을 주로 추구하며 노래를 불렀다.

2013년에 그가 발표한 『사랑찾아 인생찾아』는 KBS 주말드라마였던 『왕가네 식구들』 배경음악으로 쓰였고, 2015년에 그가 발표한 『그놈에 사랑』은 KBS 일일드라마였던 『가족을 지켜라』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2016년 6년 만의 정규앨범 기다림 Part 1 『때』 등 서정적이고 공감가는 가사들로 이루어진 음악으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 그가 2022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더 큰 길을 가기 위한 조용한 걸음걸이다.



한류는 ‘우리의 것을 세계에 전하는 우리의 정신’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 지회장

강 경 덕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평화통일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국민운동단체다.

1949년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진해 정상회담에서 엘 피디오 키리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반공연맹을 결성하도록 제의한 데서 비롯됐다.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출범으로 결실을 보고 1956년에 본 단체의 모태인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세워져 1959년 제6회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범세계적 반공단체연합 ‘세계반공연맹(WACL)’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자유센터 안에 사무국을 두었다.

1989년 3월부터 종전의 반공연맹법 대

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4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년 통일교육협의회 창립 시 합류하고,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NGO 자격으로 가입, 2003년에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가입했다.

2007년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도 합류하고, 2015년 미국 알래스카 등 3곳에 첫 해외지부를 세웠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듬해에 정치중립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강경덕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 지회장은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6.25 전쟁거리 사진전을 열어 전후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자유와 평화를 잊지 말자는 의미였다.



강경덕 지회장은 나라사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태극기 운동을 주창한다. 그것은 국가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애국의 발원이라고 말한다. 한류는 ‘우리의 것을 세계에 전하는 우리의 정신’이다. 한류의 시작은 ‘애국’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2022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은 그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숨은 일꾼…12년간 봉사활동”



서울시 시의원, 문화관광위원장

이종환

이종환 서울시 시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숨은 일꾼이다.

영세 외식업 권익을 위해 12년을 봉사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노인과 장애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봉

사활동에도 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해 뛰었던 그는 지금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펜데믹 이후의 관광도시 서울을 위해 뛰고 있다.

명품도시는 세계 한류문화의 출발이다. 작은 것을 잘 챙기는 일이 시작이다.

서울시의 각종 개발 제한과 어려움에 있는 지역을 단순히 사업성만을 보고 재개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공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주택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개발 모델을 마련한다면 전국적인 재개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강북구에서 그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신설, 동물복지정책 확대, 교육 문화환경 개선, 걷고 싶은 우이천 테마길 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



지난 8월 17일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운데)이 광화문광장 개장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환 시의원의 보여주는 실력과 경험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해본다.

한류 문화의 숨소리가 골목으로부터 골짜기부터 들려오는 것 같다.



한류의 커다란 물줄기 <따따부따> 유튜브 기대



<따따부따> 유튜버

민영삼

대선캠프에서 국민통합 특보를 하다가 논란으로 사퇴한 민영삼 특보는 “캠프에 정말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 시원하다”고 말하는 당찬 사람이다.

‘정치인’ 보다 ‘정치 평론가’로 더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배승희 변호사와 <따따부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회통합전략 연구원장이다.

유튜브는 2006년 <타임>에서 선정한 최고 발명품이다. 유튜브는 2005년 2월 15일 전자상거래 회사인 페이팔의 전 직장 동료였던 스티브 첸과 채드 헐리, 조드 커림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12월 15일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매일 200만 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었다.

지금은 미국의 구글사가 2006년 11월 유튜브를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고 유튜브를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가 창업한 2005년 2월 이전까지 사람들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갖지 못했다.

유튜브는 ‘Broadcast Yourself!’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선 ‘정치의 유튜브화’ (Youtube-ification of politics)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동영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는’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정치 담론이 ‘읽고 쓰는’ 텍스트 중심의 정치 담론을 대체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소통 과정에서 동영상에 너무 의존할 경우 정치적 팬덤(potitical fandom)에 의존하는 ‘연예인 정치(celebrity politics)’, 즉 ‘정치의 연예인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유튜브는 한류의 커다란 물줄기다. <따따부따> 유튜브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민영삼, 배승희의 시원한 방송이 한류문화를 새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세계인과 함께 생각·공감 희망”



〈따따부따〉 유튜버

배승희

배승희 변호사는 논리전재를 구사하는 모습이 남다르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이기도 하다.

변호사로 시작해 여러 TV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동대문 원단장사의 딸로 태어나 사법고시 합격으로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똑 부러진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여장부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하여 탄생한 스타다. 그는 유튜브 채널 보고서도 만들고 공부잘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의 경력에 흙수저 희망센터 이사장이

라는 명함이 있다.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 이 희망을 보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 대해 본다. 한류는 이런 희망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다.

유튜브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누가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세상을 보는 눈, 경쟁력, 삶의 질 등이 좌우될 것이다.



여론 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전문 유튜브의 경쟁도 어느 때보다 심한 현실에서 〈따따부따〉 유튜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기대에 가득 차 있다. 세계 한류문화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세계인과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헌신”



몬테라고 국제음악학교 총장

윤석진

윤석진은 ‘동양의 모나코’로 불린다. 하지만 막상 그의 이름을 국내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며 클래식계의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중국 베이징예술대학 객좌교수, 중국 중앙 민족대학 교환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의 12개 유명 도시 연주회를 가지며 점차 자신의 이름을 중국 땅에 알리게 됐다. 사실 그가 중국에 활동무대를 삼고 싶어 했던 것은 그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

무신론 공산주의 중국에 노래를 통해 선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성악계에서 ‘아시아 3대 테너’로 알려졌지만 정작 윤 교수 자신은 명성을 떨치는 것보다 선교를 위해 짧은 날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성악가는 죽는 날까지 언제나 최고의 소리를 낼 수가 없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절정일 때 자신의 이름을 조

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윤 교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지금 미국 LA콘서바토리의 학장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의 빌리 그래함’이라 불리는 레이몬드 무이 목사와 함께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한때 자신의 주 활동무대였던 C국에 우리나라의 종합예술대학으로 알려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격인 ‘엔젤 콘서바토리’를 설립했고, 올 봄에 제주도에 분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 ‘기적의 도서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오지의 땅에 있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내 기독교계나 학계 등을 통해 현지에 필요한 도서를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제 Lions Club 문화예술단 음악총감독,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원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진 성악가는 희망을 노래한다. 아시아 3대테너(윤석진, 허창, 후쿠이 케이)의 한 사람이며, 후학들을 위한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진 윤석진 님을 세계 한류의 커다란 꿈에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박식한 음악에 대한 조예는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는다. 세계를 향한 많은 비전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가 관여하는 많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요와 행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믿을 수 있는 기업, 고객들께 다가가도록 노력”



(주)허브데이 회장

박 세 창

2002년 설립된 (주)허브데이는 오로지 여성위생용품만 생산 판매하는 전문기업이다. 20여년간 한 브랜드로 국내 빅메이커 백화점 및 온·오프 쇼핑채널에서 선두권을 유지 판매되고 있으며, FDA에 제품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권에도 점진적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제품 특성상 알로에, 어성초, 박하용뇌 등 한방 성분이 조화롭게 첨가되어 여성의 건강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기에 20여 년간 변함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박세창 회장은 말한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한국소비

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더 높은 신뢰로 다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제품 및 기업의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품별로는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하여 제품신뢰도 상승을 높여 주어 고객 만족

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많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유기농 생리대 출시를 곧 앞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찾아 볼 수 유기농 제품으로 제품 전체 대부분이 유기농 순면제품으로 고객들의 건강에도 최대한 케어가 되는 제품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박세창 회장은 “허브데이는 여성들의 건강을 특히 유념하여 절대 품질로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고객님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류문화는 세상의 빛 더욱 밝게 할 것을 기대”



(재)국제기독교연맹 이사

강 말 희

강말희 이사는 국제 리더쉽 전문 지도자로 14년, 경남장애인 연합회 장학회 회장으로 8년, 민생 치안지도자 협의회 청소년 선도자로 11년을 살아온 경력과 중국 길립성 연변대학교 의과대학 중의 침구과 졸업, 중의 침구사를 취득하여 대체의학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연건강 치유 선교센타 원장으로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아직도 하루가 바쁜 생활 속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새 생활국민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인간 상록수상을 수상하여 그의 이름을 알렸다.

그가 속한 재단법인 국제기독교선교연

맹(이사장 양창부 목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독교 문화축제를 통해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앙공동체라는 인식아래 조직되었다.

NCM-TV.net(사장 강말희 목사)를 오픈하고 인터넷 국제기독교선교신문을 창간하였다. 강팍해져 가는 사회의 변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심령에 많은 변화를 주는데 크게 공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류문화는 거센 파도처럼 어느때는 잔잔한 파도처럼 세상을 덮을 것이다. 오늘 어느 구석 조용한 곳에서 울린 목소리가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의 빛을 더욱 밝게 할 것을 기대한다.

그의 성시 “언제까지니까”의 일부를 소개한다.

“내 사랑 나의 짹이여 겨울도 이미 지나고 지면에 꽃은 만발해 새들을 노래합니다.
몰약산 유향봉에서 신비로운 교제하며 때가는 줄을 모르고 찬송만 불러 봅시다”





건강 좋지 않은 환자 위한 ‘봉사·간병인’ 후원



부모사랑간병인협회 회장

박종국

박종국 회장은 평생을 지역 사회 발전과 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 하였으며, 〈전국간병사업자연합회〉부회장과 〈부모

사랑간병인협회〉회장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봉사와 그들에게 봉사하는 간병인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창조문화예술총연합회〉부총재로서 창작하는 작가와 예술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전참전연합국친

선협회〉이사로서 국익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참전 연합국과 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태극기선양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선양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국가·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혁신적인 자세로 기여”



한국창조문화예술총연합회 상임 감사

김 영 섭

김영섭 상임감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35여 년 간 헌신·봉사하였으며, 특히 군 재직 시에는 재난재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시범을 통하여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하여 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비무장지대 산불 발생시 초기에 진화하여 안전한 작전태세를 유지시켰으며, 집중 수해시에도 인명피해를 제로화한 후 복구과정에서 군의 역량을 발휘하여 민군 협조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군 신뢰도

를 크게 증진시킨 공로가 크다.

그 공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표창과 군에서는 국방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군의 안전한 부대관리를 위해 초빙강의를 하여 선배로서 귀감이 되었다.

지휘관 재직 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이 성공적으로 부대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부하관리와 주도면밀한 통제체제를 갖춘 지휘 역량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기에 국방재난안전부문 대상을 수여받게 되었다.



김영섭 상임감사는 군생활 35년간 국방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혁혁한 수훈을 세웠고, 사회에 진출하여 10년간 회사 내부 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기여하고 있다.



서정적인 글로 사람들에게 ‘감응과 행복’ 전달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회장

최 애 순

시인이면서 수필가로 여성스런 감수성이 풍부한 최애순 회장은 서정적인 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응과 행복을 주고 있다.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회장과 한사랑 문화예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시인과 수필가 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음악가까지 아울리게 하여 수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고 듣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다.

단체의 회원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 넣어 주어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서정적인 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읍과 용기’ 전달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기획·총괄본부장

심 은 혜

심은혜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성의 고운 목소리로 수많은 시 낭송 등의 행사에서 작가들의 감성을 담은 시 낭송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아왔음에도 그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겸손한 마음씨를 갖고 활동하여 왔다.

비록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하였음에도 수많은 시에는 테러파 강사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보이지 않게 한 봉사활동이 몸에 뻗 서정적인 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읍과 용기를 줌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기에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평생을 한국의 약초 연구와 약초 산업에 헌신



한국약초산업학교 이사장

조우현

평생을 한국의 약초 연구와 약초 산업에 헌신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민속식물 생산자협회 회장과 민속식물원 한국약초 산업학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민속문화종합예술인협회 회장과 한

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감읍과 창작의욕을 심어주어줌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 ▲ 민속식물원 한국약초산업학교 이사장
- ▲ 사단법인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회장
- ▲ 한국민속문화종합예술인협회 회장
- ▲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부총재
- ▲ 한국석부작문화총연합회 회장
- ▲ 민속식물 보존협회 고문
- ▲ 귀농귀촌, 효소관리사, 약초관리사 강사, 반려식물상담지도사
- ▲ 명품명강사 1급·프로시낭송가 1급·명품스피치 1급
- ▲ 사단법인 한국한율문학문인협회(詩 부문) 등단
- ▲ 분경석부작 명인

[저서]

〈반려식물 분경 석부작〉 저서, 〈시민문학〉 공저,
〈새벽을 깨우는 워낭소리〉 공저, 〈이야기속의 풍경소리〉 공저,
〈하늘빛 풍경〉 공저, 〈자연사랑 시화전 기념 시집〉 1, 2, 3회 공저





“주어진 여건에 맞춰 봉사활동 하는 아름다운 마음”



용인시낭송협회 수석 앵커국장

이 이 순

- ▲ 용인시낭송협회 수석앵커국장
- ▲ 서울로미래로1부단장
- ▲ 영웅찾기 : 문화예술위원장
- ▲ 아시아방송 : 아나운서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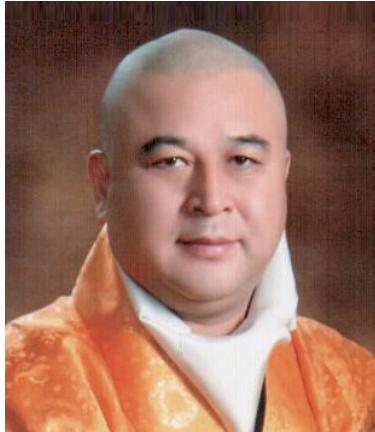
평생을 방송사의 아나운서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며 앵커로서 헌신적인 활동하였음에도 자신을 낮춰 누구 앞에도 나서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밝고 깨끗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누구나 처음 서는 무대에서 시 또는 발표와 공연을 할 때 자신감을 잃지 않고 발표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읍과 용기를 줄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문화예술(앵커)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종교인이 가야 할 길”



세계불교승가청년연합회 총재

상산 스님



서울시 상주하고 계시는 상산 스님은 자원봉사자,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하나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네팔, 스리랑카, 티베트, 태국, 미얀마, 인도 등지로부터 온 승려들에게 2~3개월씩 머물며 한국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해외 스님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스님의 공적은 이미 국내외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해외 포교로 다진 인맥 덕분에 대만에 본부를 둔 세계불교청년승가연합(WBSY·World Buddhist Sangha Youth) 공동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WBSY는 2004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탄트라불교, 선종 등 5대 종단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했다.

‘세계는 하나다(We are one)’라는 구호 아래 지구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WBSY는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넓고 병든 생각을 버리고 깊고 바른 생각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WBSY는 해마다 각국을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고 그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원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물자를 지원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인류가 한마음 되어 세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년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스님, 불자, 일반인 등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다.

상산 스님은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유치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스님은 “총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다. 대회에 참석한 60여 개 나라의 불교 지도자와 UPF, IAPD, 네팔친선대사 초종교 지도자와 정부 주요 인사의 만남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분단된 상황을 알리고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의 언론매체 동반 취재로 한류 확산과 홍보 극대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스님은 지역사회 봉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경찰서 경승위원, 지자체 청소년 육성위원, 범죄예방 선도위원 등 지역 밀착 봉사활동을 펼쳐 다양한상을 받기도 했다.

상산 스님은 삶의 지혜에 대해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는 옛말을 상기시키며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을 건립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산 스님은 경력을 보듯이 그간 수행을 해 오면서 국내외적으로 60여개 국가와 베삭대회(Vesak Day) 많은 활동을 하였고, 특히 인도네시아 보나보르드 사원 복원 추진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베삭대회(Vesak Day) 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스리랑카 쓰나미 재난 이 왔을 때 구호품도 전달했고 태국 10대 국왕 대관식에 한국 한류문화 봉사단을 이끌고 공연은 물론 6.25 참전 용사 위문공연을 하였고 동남아 주요 행사등 모든 행사에 초청을 받을 정도다.



“국내외 최초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 전시회 개최”



(사)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 선 기

- ▲ 선린상고 졸업
- ▲ 삼천당제약 경리부 근무
- ▲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 ▲ 태극기선야운학회 회장
- ▲ 한국문인협회 시인, 한국가수협회 가수
- ▲ 한국저작권협회 가요 작사가
- ▲ 영예의 대통령 표창 수상
- ▲ KBS, MBC, SBS, KTV, 교통방송 출연
- ▲ 태극기선양 50년 세계기네스 등재인

국내외적으로 태극기선양운동을 1971년부터 50년 이상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1982년 태극기사용 100주년을 기해 국내외 최초로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종문화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학교, 군부대 등 100여 차례 국민계몽 태극기전시회를 개최하여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 선양하였다.

태극기에 대한 교육운동을 1978년부터 전국 최초로 태극기교육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관공서나 학교, 군부대, 경찰서, 어린이집 등 태극기교육운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태극기 노래와 시를 창작하여 널리 보급하는 등 애국운동의 선봉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류문화전개 수범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지구환경보전에 기여”



(사)국제지구환경보전실천기구 고문

김상훈

김상훈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부문에 있어 2004년부터 풍력발전기를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공기역학만으로 풍력발전기의 회전체의 회전력을 얻는 것을 과학적 이론(베르누이 정리와 뉴톤의 법칙)을 적용한 ACC 풍력발전기(공기집중압축형 풍력발전기 : ‘Air-Concentration-Compactness Vertical Wind Power Generator)를 개발하였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경부의 미래유망녹색기술포럼’ 제1기 위원, 제2기 기술위원과 2013년부터 2015까지

세계에너지사업화협의회(GCES) 전문위원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밭대학교 휴케어센터 부소장과 2013년부터 2014까지 대전광역시 ‘창조경제포럼’ 자문위원과 2015년부터 2021까지 (사)국제지구환경보전실천기구(INGO-GECPO) 이사장(현재 고문)을 역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개발에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웃을 위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여 사회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환경실천가이기도 하다.



풍향진중압축형 풍력발전기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에 부족함 없는 공적으로 심사에 통과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기에 환경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시민에게 시 보급으로 일상화 하는데 일조”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고문

김석인

2013부터 <열린문학> 편집 본부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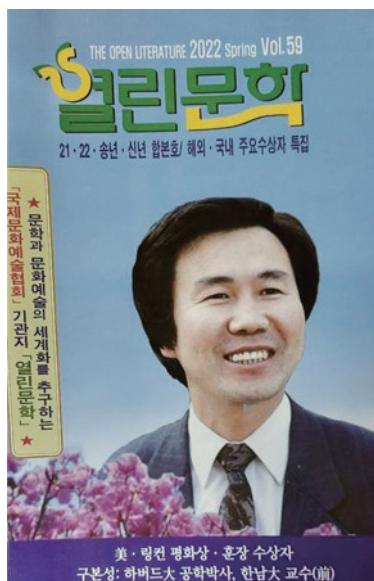
로 있으면서 계간지를 편집하여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프랑스, 독일)에 홍보하여 문화 예술 홍보와 교류를 해와 국위 선양을 하여 왔다.

2018년부터 한국문인협회 미주지회 계간지 ‘한미문단’에 국내 작가들 30여 명을 엄선하여 시, 수필, 동화, 동시, 소설, 평론 등을 발표하여 미국 뉴욕, LA, 캐나다, 하와이, 국내에 홍보와 교류로 문학발전을 위하

여 활동하였다.

2020년 다가치 포럼 협동조합에서 서울 시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시낭송, 노래, 마술, 다과제공 등 봉사했다.

또한 시향서울낭송회에서 요양원, 노인정, 병원 입원실 등을 방문 환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기에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2013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시 낭송가로서 문인으로 활동하며, 특별히 시 낭송을 시민들과 교류, 봉사로 많은 시민에게 시 보급으로 일상화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2020년 10월 30일 시집 <시가 원데>를 출간, 독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로 2022년 쉴만한 물가 작가회 선정 작가 문학대상을 수상하였다.



오감만족 위한 “인성강의 및 위문공연, 이·미용 봉사”



(재)오감봉사단 단장 / 오감 이사장

김영진

재단법인 오감의 이사장이면서 오감봉사단의 단장으로 지난 12년간 사회의 어두운 곳인 중증(重症) 장애인 시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국군(國軍)(육, 해, 공군 및 특수부대) 등을 다니면서 오감만족을 위한 나눔과 봉사 그리고 인성강의 및 위문공연, 이·미용 봉사를 하여 왔다.

또한 서울 성북구청, 노원구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역 복지관과 함께 함으로서 지역 독거노인

의 건강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행사를 3여년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교육과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하여온 지난 12년간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만 운영을 하여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읍과 용기를 줌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군부대 조리병들에게 요리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10여 년 넘게 몸 불편한 사람들 건강 회복 위한 봉사활동”



(사)한국문학협회 이사

남궁유순

남궁유순 한국문학협회 이사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하였음에도 자신을 낫춰 누구 앞에도 나서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

비록 늦깎이 시인이면서 수필가로 등단하였음에도 수많은 시와 수필에는 친성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에 밴 서정적인 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읍과 용기를 줌으로서 세계 한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본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 ▲ 충남 부여 출생(목사)
- ▲ 가수(팡이야 음반/ 카페 드라이브뮤직 음반)
- ▲ 경영인(주) 대명리제르바 사내이사
- ▲ 2019년 한국 국보문학 등단 / 시 부문 신인상 수상 / 시인
- ▲ 2020년 한국 국보문학 등단 / 수필 부문 신인상 수상 / 수필가
- ▲ 2021년 한국 문학신문 문학상 / 수필 부문 우수상
- ▲ 태극기선양문학회 회원—
- ▲ 2022년 국회의원상 수상
- ▲ (사) 문학한국협회 이사, 한국서정문학 이사
- ▲ 한국어문 교정교열사, 3급. 2급. 1급 라이선스 소지자





“세상과 소통하는 지하철 시인 후암 안중태 시인”



한국창조문화예술총연합회 부총재

안 중 태

안중태 시인은 “유아기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성장하면서 학창시절부터 일찍이 시인의 꿈을 키워왔다”며 “중학교 2년 한글날 백 일장에서 ‘낙엽’이라는 시로 입선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반공글짓기에서 수상을 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월간 문예사조를 통해 ‘그대’ 외 2편으로 문학지에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현재 안 시인은 지역사회, 양노원, 경찰

서, 복지대학 등 재능기부를 하며 열정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하철 시 공모작으로 출품한 <요즘 우리부부>라는 시는 지하철에 게시되며 화제를 모았다.

안 시인은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이라며 요즘 어렵고 힘든 시기도 하기 나름이란 믿음으로 봄날처럼 젊고 뜨겁게 살아가고자 애를 많이 쓴다”며 “많은 사람들이 봄날처럼 웃음꽃 피우고 살아가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 ▲ 한국방송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 2007 월간 <문예사조> 등단 (그대, 나팔꽃, 차 한잔에)
- ▲ 한국문인협회 회원 / 동작문인협회 회원
- ▲ (사)한국문학협회 운영이사
- ▲ 시가흐르는서울 부회장
- ▲ 한국시백문인협회 부회장
- ▲ 시꽃 예술협회 부회장
- ▲ 한국문예작가회 기획국장
- ▲ 심정문학회 운영이사
- ▲ 한국창조문화예술총연합회 국장
- ▲ 용인시낭송협회 보도국장
- ▲ 용인 타오름 시낭송 봉사단원
- ▲ 안산시낭송협회 자문위원

- ▲ 2018 노벨타임즈 올해의 작가상 ▲ 2021 황금찬 문학상
- ▲ 2021 유관순 문학상 ▲ 2022 덕평공원 시비건립<파란 보자기>
- ▲ 2022년 서울비엔날레 특별전 문학상 대상
- ▲ 2022년 동작문협 /용인시낭송협회 등 공로상
- ▲ 서울시 지하철 공모작 선정
 - 2017년 “요즘 우리 부부”
 - 2021년 “파란 보자기”
 - 2022년 “이팝나무”
 - (시집) 제3집 /요즘 우리 부부 외 다수





“한국교회 중흥 위해 발로 뛴 목회자”



(사)한창총 교육위원

류 한 상

중경대학 식가공(생화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현) 90회 총회장 역임하였고, 21c 목회성장연구소, 한국교회회복운동 전국 세미나 18차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중흥을 위해 발로 뛰었다.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인간성 회복에도 앞장섰으며 지금도 기독교 여성신문 주필로 있으며 여러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다. 2015년 선행대상을 수상하였고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에서 교수와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 가곡 작사가협회 부회장과 한국찬송가작가협회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가 발표한 칼럼 한 대목을 보면서 사고와 삶의 목적을 문틈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아쉬움과 미련이 교차하는 결산의 달이라고 말들 할 수 있다지만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없어야겠습니다. 1년 365일 다 소비시켰는지 아니면 멋지고 귀하게 잘 사용했었는지 반드시 돌아보면서 점수를 매겨 볼 만할 때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아니 벌써 한 해의 끝에서 나름대로 한해 발자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한 일과 잘못되어진 일의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 분석만이라도 이루었다면 다행이겠지요. 나름대로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하지마는 완전 만족 보람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한답니다. 수고 한 대로 노력한 대로 힘쓰고 애쓴 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과 이웃과 우리에게 자가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일기장을 남의 일로 인해서 어지럽혀 흐린 일은 없어야겠지요.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웃과 사회와 부딪혀진 모든 것들로 내 정신을 빼앗기고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나를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나를 잃지 말고 이웃과 남에게까지 좋은 예쁜 아름다운 모습들로 비춰어져서 도리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만한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 부끄러움은 없느냐





“복지와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이 한류문화 부를 받은 이유”



호산나선교회 회장

유 청 수

유청수(본명: 유재근)는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 킹스웨이신학대학원, 워싱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원로 목사이다.

『긍정과 부정의 노래』를 저술하였고 기도 중에 후편으로 『사랑의 메아리』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의 감사는 행동하는 신앙이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는 신령한 노래라고 소개한다.

나의 길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메아리』란 사랑의 산울림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의 문을 다시 연다고 말한다.

“사랑은 내 삶의 윤리이다. 그리고 나의 추함을 감추어 주는 물감이다. 하나님은 나를 육적인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영적 성장

을 하도록 사랑으로 자극시켜 주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그때 인생의 불행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당신의 삶에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고, 그 사랑이 당신을 슬픔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말한다.

『긍정과 부정의 노래』, 『사랑의 메아리』 출간에 이어서 『길과 진리』 출판(부제: 존재가 진리에게 묻는다)을 앞에 두고 있다.

그는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단체 후원과 신체장애인복지회를 지원하고 세계여성장애인 교류 및 장애인 전문치료병원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는 지난 11월 16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화요 평화기도회를 열고 유청수 목사에게 한반도 평화상을 수여했다.

평생 한길을 걸으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목적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존경과 사랑은 삶에서 나온다. 지나온 날에 대한 고백과 감사는 늙음에 만족하면서 사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다. 복지와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이 그를 세계한류문화의 부를 받은 이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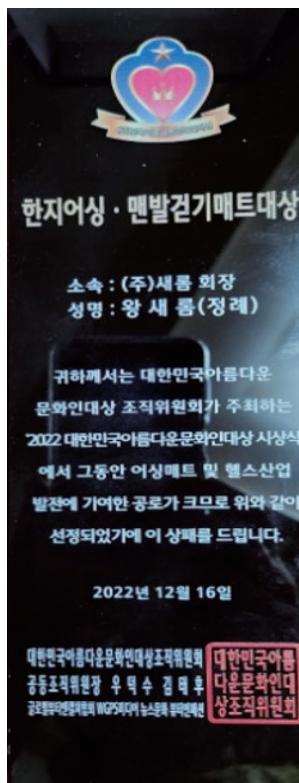


‘새롬 어싱’ 맨발 걷기, 사람을 살리는 기업 !



(주)새롬 회장

왕 새 롬 (정례)



36년전 30대 중반에 암 수술 후 25년이 지나 또 두 가지 암으로 내 몸에 장기는 4개가 잘려나갔다.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7남매 중 나를 포함해 5남매가 암에 걸려 6명 암가족이 됐다. 나는 중환자실도 4번 들어갔다. 다시는 중환자실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게 소원 이었다.

9년 전 우연한 기회에 어싱을 알게 되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진짜가 아니었다. 어싱 책을 읽어보니 제대로 만들면 세상에서 최고 좋은 면역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차피 잠잘 때 침구류는 필요한데 최고 좋은 명품이 무얼까?

연구 중에 한지가 체온을 올려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화여대, 포스텍, 아산병원, 단국대 등에서 공동연구 발표한 자료를 접해보니 모든 침구나 매트에서 발암물질이 폐암을 40배나 일으킨다는 보고를 알게 되었는데 한지는 억제한다는 논문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지에 미쳐 연구하고 땅과 접지가 되게 개발하여 영양가 있는 땅이 무얼까 기도속에 소마티드라는 물질을 알게 되어 새롬 제품은 고품격 명품으로 탄생했다.

또 암 환우들을 보면서 걸어야 회복이 되는데 걸을데가 없고 걸을 기운도 없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눈이오나비가 오나 늦은 밤에도 소음이 없이 집에서나 병원이나 사무실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걷고 잠자는 매트 베개 방석 황토볼 매트를 많은 환우들의 임상을 거쳐 새롬 맨발걷기 방탄 면역제품이 탄생하게 됐다.

진짜가 없어 내가 쓸 것을 찾다 보니 양면으로 접지가 잘되게 개발하게 되고 명품을 탄생시켜 나와 같이 아픈 분들께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보니 오늘의 새롬 어싱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새롬 어싱을 쓰시는 고객님들께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숭고한 예술적 고뇌 한류문화예술에 큰 쓰임 받게 될 것”



(사)한국재능기부협회 부회장

박 창 로

무강, 박창로 화백은 예향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흥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47년 동안 한국화를 연구하고 수년간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무강한국화연구실을 운영 한국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학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만남을 미적으로 승화시켜 16회의 개인전과 250여 회의 단체전 통해 우리 강산의 자연을 자신만의 독창적 회화언어로 발전시켜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술문화 유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끈임 없는 연구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초로 한국화 요청준법을 창안 개발하였으며 세계 기네스 인증, 세계 최고기록 인증, 대한민국 최고 기록으로 인증 받았다.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활용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교육부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신지식인상, 대한민국미술인상, 대한미국을 빛낸 한국인 물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미술문화와 예술발전을 선도하는 중견 작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활동과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생의 가치로 생각한다.

‘한국화’라는 새로운 지평의 무대를 펼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고백한대로 “자연의 언어로 인간을 규명하는 거룩한 산고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대한민국의 예술이 아닌 한류의 줄기가 되어 세계 어느 곳곳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한국화의 위대함을 전하고 싶은 기대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박창로 화백은 산천과 학,꽃 등의 소재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깨우게 될 것이다. 그가 창안한 ‘40년 동안 한국화 요청준법 독창제작기록’은 세계 최고기록과 기네스와 대한민국 최고기록 인증을 받은바 있다. 그의 숭고한 예술적 고뇌는 세계한류문화예술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 공로상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 공로상

| 일 시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 최 |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

| 주 관 | 한류신문, 대한황실진흥원, 검찰연합일보, 환신바이오



신재생에너지개발 부문

조동희

(주)그린수소에너지 회장



세계한류문화봉사 특별 부문

이기노

한류신문 카자흐스탄 지회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서창원

한류문화협회 문경시 지회장



세계한류문화봉사 특별 부문

장효관

한류신문 베트남 지회장



세계한류복지교류 부문

신부호

(사)비바코리아 이사장



한류문화예술 공로 부문

심소원

SBS아나운서



세계한류문화종교 부문

장요한

사가정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노인복지봉사 부문

이명숙

한류신문 노인복지 위원장





수상자 수상을 축하합니다



사회봉사특별 부문

마태겸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대표이사



세계한류자원봉사공헌 부문

황종문

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 회장



세계한류문화언론 부문

이준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이사장



세계한류문화관광우수기업 부문

박철

(주)덕성국제여행사 대표이사



지역사회예술봉사공헌 부문

황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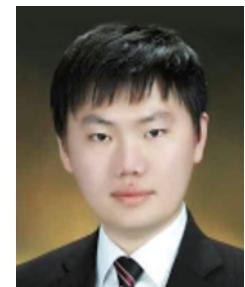
화가



한류우수식품 부문

최희영

(주)더채움 회장



지역사회복지봉사 부문

김상동

경북 예천군 前부군수



한류문화국제교류 부문

최혜원

(주)프로디디 대표이사



세계한류문화발전 특별공로 부문

마홍배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총재



한류문화특별공로 부문

문형봉

헤드라이너코리아저널 발행인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 공로상



세계한류문화발전 공로 부문

임영기

대한황실진흥원 사무총장



한류문화특별공로 부문

김남현

한류신문 부회장



한류문화특별공로 부문

강신욱

(주)약선식품 마힘 대표이사



세계한류봉사 부문

김민정

(사)청소년문화원 원장



한류산업안전봉사 부문

서상윤

한류문화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세계한류문화예술발전 부문

노병재

가수



세계한류문화예술 부문

황선정

웨딩컬렉션 원장



한류문화예술발전공로 부문

김경암

가수



세계한류문화교육봉사 부문

김정만

(사)청소년문화원 이사장



한류문화가요공로 부문

허진주

가수





수상자 수상을 축하합니다



세계한류문화경영자 부문

손 성 동

큰샘나라엔터테인먼트(주) 회장



한류문화국제봉사 부문

유 현 종

영화감독 / 삶과예술포럼 회장



한류문화봉사공헌 부문

장 복 현

(주)솔트리 이사



세계한류문화공헌 부문

박 진 관

예성종합건설(주) 회장



한류문화예술봉사 부문

정 형 순

가회한옥체험관 대표



한류문화국민건강 봉사부문

장 형 순

아이덴치과기공소 대표



한류사회봉사 부문

이 용 섭

서울예인노동조합 위원장



세계한류문화공헌 부문

송 현 택

한류신문 광주광역시시 지회장



한류보건복지 부문

오 병 두

튼튼플란트치과 원장



한류문화예술교육 부문

한 정 민

기획프로듀서협회 대구시 지회장





12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사를 발표하는 송유영 회장

'세상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2022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이 12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신문, 대한황실진흥원, 검찰연합신문,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가 주관한 시상식에는 한옥, 한복, 한글, 한식부문을 비롯하여 한류문화의 각 분야에서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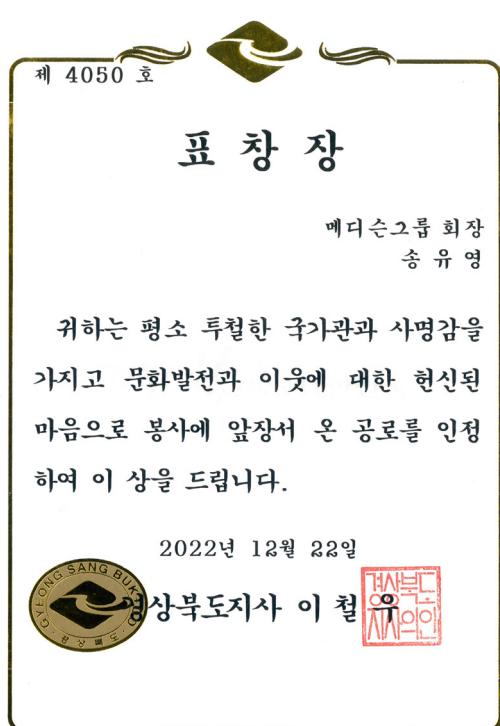
대회사를 통해 송유영 대회장은 "한류문화는 이제 세계의 문화이며 세계인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세계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이 흐르도록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황교안 前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제 한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은 자랑스런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오늘 대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은 한류의 가장 앞자리에 서있는 자랑스런 분들"이라며 축하를 하였다.

대상 수상이 끝난 후에 한류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상이 이어졌고, 특히 메디슨그룹 회장 겸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장이신 송유영 회장은 경상북도지사 한테 한류문화에 공헌하고, '봉사'와 '문화발전'을 도모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2022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은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해를 정리하는 시상식에서 우리는 다시 한류의 꿈을 세계에 뿌리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



<2022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송유영 회장과 국내외빈들







2022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

World Hallyu Cultural Contribution Award 2022

2022. 12. 22. (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조직위원회 주관 : 한류신문 (사)대한황실진흥원 검찰연합일보 환신바이오 HWANSIN BIO 한국신문방송총연합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12월 7일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 기념 첫 모임에서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막오른 與전대 ‘룰 전쟁’

“당심 100%” “현행대로” 갑론을박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모드로 사실상 전환하면서 ‘룰 전쟁’도 막이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3’으로 규정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비율을 ‘9:1’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심’은 당원투표를, ‘민심’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여권 핵심부에선 늦어도 내년 1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전당대회 룰에 관한 당헌개정 작업에 나서는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심 비율을 ‘확’ 높이는 룰 개정에는 친윤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권성동 의원이 김형석 명예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자리인 만큼, 야권 지지자가 응답할 수도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당심 비율을 높이는 데 개정도 일부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 일각에선 ‘이준석 사태’가 재현되선 안된다는 논리로 를 개정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리고도 압도적인 일반국민 여론조사 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치며 당내 분란을 초래한 만큼, 이런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친윤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끝장”이라고 말했다.

친윤계가 당내 다수이긴 하지만, 를 개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분출해 논란도 예상된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 권성동 의원은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권 의원은 “당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진 가운데 권성동 의원과 장재원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투표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를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1순위에 오르내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를 개정을 놓고 “삼류 코미디”, “축구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 언급하며 작심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비윤(비윤석열)계 대표주자로 꼽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를 개정 관련 질문에 “어쨌든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더라”고 말했다.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는 “대부분 의견들이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본격 논의는) 일단 예산처리 끝나고 하려고 한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당원과 국회의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 7일 첫 출범…의원만 71명 ‘세 과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 많아…단호히 말씀”

유승민 KBS 출연해 ‘전대률 변경?’ “코미디 같은 일”

원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률 개정이 가장 휘발성 있는 사안인 만큼, 설왕설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은 유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재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이 ‘나 하나 때문에 률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다. 약간의 과대망상 아닌가”라며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당심과 민심 비율이) 5 대 5였는데도 초선인 김은혜 전 의원에게 졌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민주당 ‘역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도권·MZ 세대 당대표론’을 거론한 것은 ‘한동훈 차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의 고향은 서울로 알려지고 있고, 아직 40대로 비교적 젊은 한 장관이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 발언의 숨은 뜻으로 분석됐다. 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에 나온 발언이기에 ‘윤심(尹心)’이 한동훈을 지목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 장관 본인은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차출론’에 대한 추가 질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고,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 드렸다. 장관으로서 중요한 일이 많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모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은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12월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은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이를 통해 어떤 직·간접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밝히는 일만 남겨뒀다.



‘이재명 공모’ 직접 적시 못 해 정진상과는 ‘정치적 동지’ 규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의 정 실장에 대한 공소장엔 이 대표가 혐의 사실의 ‘공범’으로 직접 적시되진 않았다.

다만 정 실장의 지위, 역할, 혐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한 검찰은 이번엔 ‘정치적 동지’ 관계로 규정했다.

정 실장 구속 때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쓴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는 이 대표 과거 발언도 두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 언급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데는 정 실

정진상 함구에 ‘李公모’ 적시 못 해…‘정치적 동지’로 규정

배임, 불법자금 수수 규명 숙제…조사 불가피하나 불체포특권이 변수

장이 지난달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 전까지 피의자를 매일 불러 혐의를 확인하지만 정 실장이 묵비하면서 검찰은 몇 차례 소환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와 대장동 비리 사안 ‘접점’을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검찰은 남욱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일관되게 최종 로비 목표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정영학 녹취록’ 등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토대로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례·대장동 민간업자와 ‘거래’했나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이 대표의 혐의는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이다.

수사의 초점은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4천40억원을 챙기는 과정에 모인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또는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성남시가 입게 된 손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씨가 짠 확정 이익 배분 방식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고, 이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것으로 본다.

남욱 씨는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몸통'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대표 공약이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고 이런 결정이 민간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배임 혐의 외에 대장동 사업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 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가려면 그가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사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뒷돈'이 이 대표에게 선거자금 등 용처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남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 가량이다. 남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1천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도 이 대표 측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학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일자 11월 19일

혐의

• 특가법상 뇌물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 수수

• 부정치사후수뢰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

• 부패방지법 위반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

• 증거인멸교사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남욱 변호사가 12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10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음

검찰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는 죄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수시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자신의 활동비나 이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쓴 것으로 의심한다.

남씨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되고서 김 전 부원장에게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며 구명을 요청한 것 역시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네는 등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강제수사 임박…김만배 ‘입’ 따라 수사 속도 결정될 수도

그간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수년 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온 만큼 암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터라 쉽진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속도는 입을 굳게 다문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있다.

김씨가 이 대표 측, 즉 ‘관’(官)과 민간업자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선 김씨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해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2024 美대선 바이든, 곧 재선 도전 선언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2024년 대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8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예상외 선전으로 한숨들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격전지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을 찾아 자신의 경제계획이 미국의 제조업 불과 공급망 재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월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WSJ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서밋에 참석해 “전국의 많은 민주당원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통령은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인 비서실장은 “연휴 직후로 (결정 시기를) 예상하고, 그렇게(출마 결정) 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또한 이러한 발언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대해 가장 최근에 밝힌 것과 일치한다”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선 도전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중간선거 직후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내년 초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었다.

최근 들어서는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행보도 확인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서 인종 다양성 등이 더 잘 보장되는 주(州)로 대선 첫 경선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세기 이상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온 아이오와주 대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20년 경선 당시 바이든 후보

가 재기 발판을 마련한 지역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방식 역시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를 없애고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에서는 11·8 중간선거로 한숨 돌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을 고심하며 최근 미시간, 애리조나 등에 위치한 제조업 시설을 잇달아 찾고 있는데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SK실트론 CSS 공장, 이날 방문한 대만 TSMC공장이 각각 위치한 미시간과 애리조나는 미국 내 대표적인 ‘swing state’(경합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TSMC 공장 장비반입식에 참석해 “TSMC와 같은 기업 대표들에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에 상당한 양의 투자를 진행할 경우, 업계를 끌어들일지 아니면 밀어낼지에 대해 질문했었다”며 “나는 미국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SK실트론CSS 공장 방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 계획이 미국의 제조업 봄은 물론, 공급망 재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

러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선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경제 심판론의 주 배경이 됐던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중간선거 유세 일정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들과 유사하다. 사실상 재선 도전을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날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남은 마지막 상원의석 한 자리가 달린 조지아주 결선투표날이기도 하다.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7시(한국 오전 9시) 마감된다.

민주당이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조지아주에서 1석을 추가할 경우 51대 49석 구도가 돼,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향후 국정운영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8 중간선거를 계기로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부각됐던 바이든 재선 불가론은 한풀 꺾인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80세 생일을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이 80대 대통령으로서 4년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을지 나이, 체력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두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11월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70%는 “너무 늙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40%대 초반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2024년 대선은 ‘바이든 대(對) 트럼프’ 리턴매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예상대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2016년 대선 승리, 2020년 재선 실패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현재 공화당 대권 잠룡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7일 러시아 전국에 방영된 TV방송에서 핵무기에 관한 언급을 함에 따라 의도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시민사회 및 인권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회의’(러시아 인권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를 면도기처럼 휘두르고 싶진 않다”고 했다. 또 “러시아는 미치지 않았다.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적 없다”며 서방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월 하순 이래 전쟁의 주요 고비마다 핵무기에 관한 얘기를 꺼내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 왔다. 특히 여름에 우크라이나 측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에 전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한 이래 푸틴의 핵 언급 발언이 더욱 잣아지고 있다.

푸틴은 9월 21일 동원령을 내릴 때 서방 측이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9월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주를 ‘합병’한다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이미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쓴 적이 있다는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의 발언은 점령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토 방위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려는 의도로 판측됐다.

푸틴은 10월 27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필요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푸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다만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응해서 발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8월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총리가 되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각오가 돼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총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푸틴의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마치 노골적 협박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량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임을 감안하면 푸틴이 ‘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나 서방에는 협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같은 협박 효과를 노리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푸틴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언은 한 적

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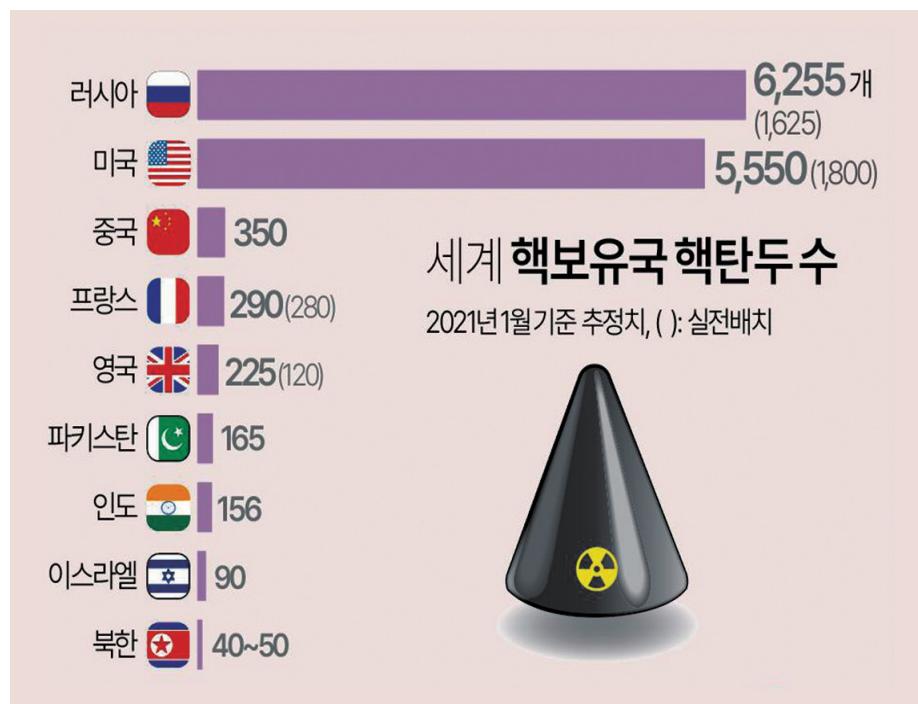
이번 러시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선의 표현으로,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할 생각은 없느냐”고 푸틴에게 질문했으나, 푸틴은 확언을 단호히 거부했다.

타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만약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해 버리면 두번째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우리 영토에 (먼저) 핵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반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런 푸틴의 태도는 러시아가 그간 공식적으로 천명해 온 ‘핵무기 사용 원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된 공격이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재래식 무기가 동원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젤렌스키는 9월 말에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험은 항상 있다”며 실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러시아의 전황이 매우 불리해져서 푸틴이 승전을 위해 과감한 도박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선제사용 자제 공언 거부…‘핵 언급’ 그 자체로 위협 효과

우크라 “허세 맞다” vs 전문가 “사용 가능성 작아도 배제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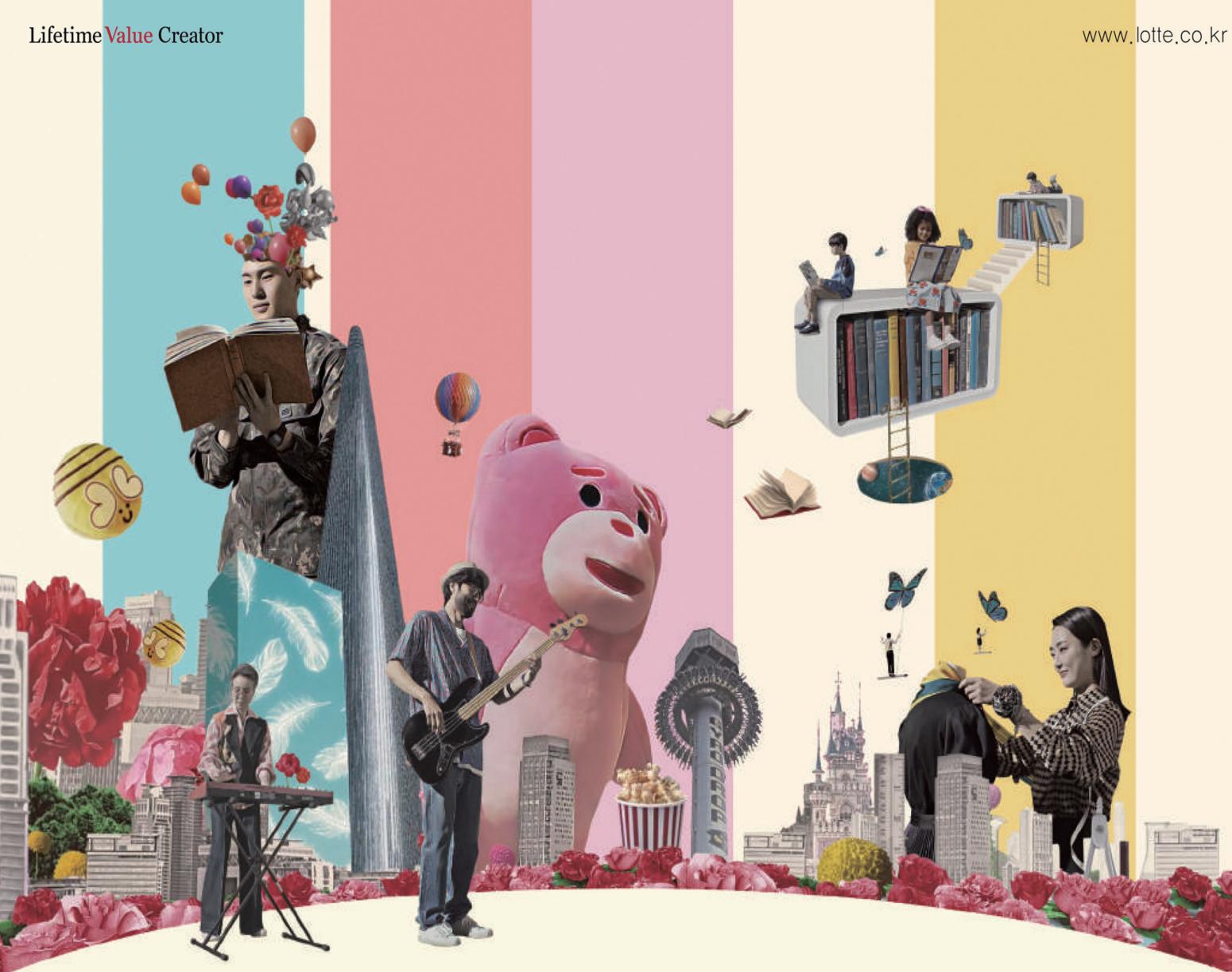
즉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핵무기를 상대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푸틴의 거듭된 핵무기 언급이 실질적인 ‘핵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을 지난달 말에 밝혔다.

그는 11월 3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주최한 ‘딜북 서밋’ 콘퍼런스에서 방영된 영상 연설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고 살아남길 원한다”며 “따라서 내 사견으로 그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 국방정책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9일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FP)의 ‘주장’ 코너에 실은 기고문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태, 핵전쟁은 오늘날 가능하다. 설령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라는 말로 상황을 요약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과 지제로 미디어의 사장인 이언 브레머는 지난달 18일 낫케이 아시아의 의견 코너에 실은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은 작지만, 중대한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아주 작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함께 꿈꿀 수 있는 세상
롯데가 만들어 갑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



중국·사우디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수도 리야드에서 회담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정상이 12월 8일 회담하고, 깊은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에너지·정보통신·인프라를 망라하는 3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영 SPA 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사우디 왕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실세 무함마드 빙살만 왕세자와 회담했다.

통신은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직접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양국 정상이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비전 2030’이 조화를 이뤄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SPA는 덧붙였다.

일대일로는 중국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해외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 협력을 통해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시주석의 대표적 대외 이니셔티브다.

비전 2030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한 산업 다각화를 위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중국과 사우디는 이날 그린 수소·태양광·건설·정보통신·클라우드·의료·교통·건설 등 분야 34개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통신은 양국이 1천100억 리얄(약 38조6천억원) 규모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사우디에 클라우드 및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안보상 우려와 중국의 '기술 끌기'에 대한 견제 의도 때문에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기피하는 중국업체다. 미국은 2019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2020년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했다.

또 사우디 투자부와 중국의 산동이노베이션그룹이 사우디 내 알루미늄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양국이 2년마다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이 양국 간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직접 서명하고, 2년마다 한 차례씩 양국을 번갈아 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며 회담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우디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은 중국으로 향한다.

SPA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의 무역 규모는 800억 달러(약 105조6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 무역액은 270억 달러(약 35조6천억원)다.

앞서 시 주석은 사우디 언론을 통해 "이번 방문은 아랍 세계와 걸프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선구적인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보고 있나?"…전투기 띠워 시진핑 특별의전한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공군 전투기를 띠워 자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에스코트하는 등 특별 의전으로 환대했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당시 냉랭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12월 8일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중앙TV(CCTV), 미 CNN 등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왕립 공군 전투기 4대가 에워싸며 호위했다. 시 주석의 전용기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상공에 다다랐을 때는 의전 호위기 '사우디 호크' 6대가 동반 비행하며 사우디 국기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연기를 내뿜었다.



12월 7일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상공으로 사우디 공군 전투기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용기를 호위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리야드 주지사 파이살 빈 반다르 왕자 등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빙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며 제1회 중-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이사회(GC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시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의전 호위기는 중국의 오성홍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 연기를 내뿜으며 환영했다.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는 지역수장인 파이살 빙 반다르 알 사우드 왕자와 외교장관인 파이살 빙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 등을 비롯한 주요 왕실 인사와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 시 주석을 영접했다. 리야드 도심 도로 곳곳에는 중국 국기가 내걸렸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6년 여 만이다. 시 주석은 도착과 함께 발표한 서면 연설에서 “중국과 사우디는 수교 후 32년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양국의 관계를 비롯해 공통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수개월 전부터 시 주석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GCC 좌장국이다. 지난 80년간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틀어진 만큼 중국이 빈틈을 노리기에 최적의 국가라는 해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 7월 사우디를 방문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 없이 돌아갔다.

당시 바이든과 빙 살만 왕세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가 아닌 주먹 인사를 한 뒤 회담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빙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에 증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바이든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순방은 바이든의 빈손 귀국 후

5개월 만으로, 어떤 외교 성과로 이어질지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시 주석 방문기간 양국이 1,100억리얄(39조 6,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외에 사우디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관련 협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갈등 관

계에 있는 중국과 사우디의 밀착 행보에 바이든 행정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시 주석에 대한 사우디의 극진한 대접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며 “세계 여러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CNN은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에 대해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국제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중동은 확실히 그들의 영향력 수준을 심화시키고 싶은 지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중국이 추구하려는 많은 것들과 추구하는 방식이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제다 왕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Mr. Everything



세계 최고 갑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누구?

- 출생일 : 1985년 8월 31일
- 출생지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배우자 : 사라 빈트 마쇼르 알사우드 (2008 ~)
- 학력 : 리야드 왕자학교(우등생 졸업)
킹사우드 대학교(법학과, 차석 졸업)
- 재임기간 :
제7대 국방장관 (2015년 1월 23일 ~ 2022년 9월 27일)
제12대 제1부총리 (2017년 6월 21일 ~ 2022년 9월 27일)
제7대 총리 (2022년 9월 27일 ~ 현직)
- 현재 :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국방장관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구단주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선물보따리'를 안기고 하루 만에 한국을 떠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그야말로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진 사우디의 실세다.

올해 37세로 왕세자이면서 총리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7세의 아버지 살만 국왕을 대신해 국가 정상으로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

11월 17일 0시 30분경 서울공항으로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가 한국에 머문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에너지 및 인프라 등에서 40조 원 규모, 26건의 사전양해각서(MOU) 및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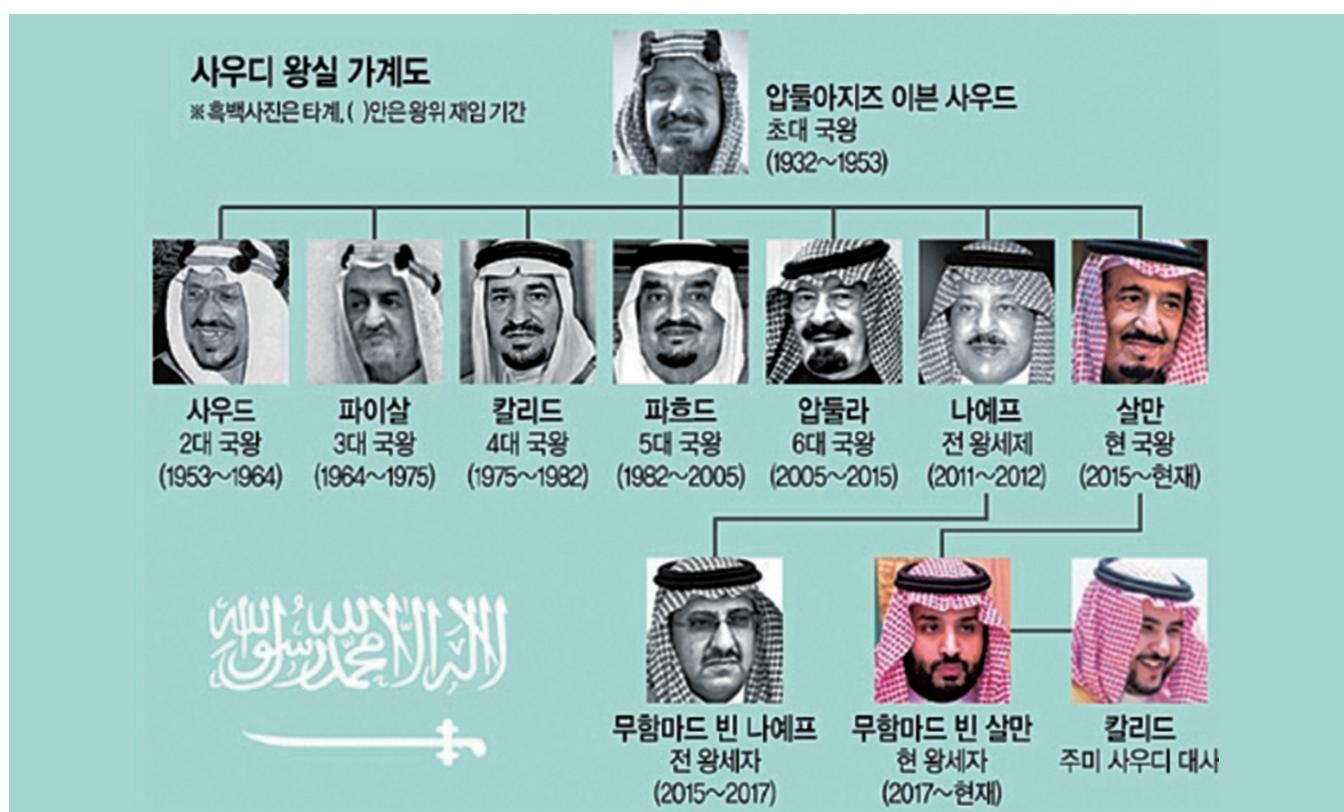
빈 살만 왕세자는 1985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

드 국왕과 세 번째 부인 파흐다 빈트 팔라 빈 술탄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우디 킹사우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2009년 리야드의 특별고문에 임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대에 아버지가 왕세자에 이어 왕이 되는 과정에 책사로서 크게 기여했다.

살만 국왕은 2015년 즉위한 뒤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제1왕세자 겸 내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친아들인 빈 살만을 부왕세자 겸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

2017년 살만 국왕은 전격적으로 빈 나예프를 폐하고 빈 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빈 살만이 32세에 권력 2인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30세에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빈 살만 왕세자는 올 6월 국왕이 총리를 겸하는 전례를 깨고 총리직을 물려받았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대주주인 빈 살만 왕세자는 추정 재산이 2조 달러(약 2700조 원)로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다.





빈살만 왕세자 부인 '사라 빈트 마쇼르 알사우드'



빈살만 아들인 '살만 왕자'와 '마쉬 하르 왕자'

빈 살만, 40조원 풀었다… 26개 대형 투자협약 '제2 중동특수'

사우디 왕조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포브스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2,094억 달러) 재산 보다 10배가량 많다.

무엇이든 실현시키는 빈 살만 왕세자는 별명도 '미스터 에브리씽'(Mr.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이다. 5억 달러짜리 요트와 4억 5,000만 달러의 레오나르도다빈치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 방한에서도 숙소로 사용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 400여개를 2주간 빌렸다.

그가 묵은 객실은 460m²(약 140평) 규모의 이그제큐티브타워 32층 로열스위트룸으로 하루 숙박료가 2,200만 원에 이른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



사우디 '네옴(Neom) 시티'

위치: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황야

면적: 2만6500㎢(서울의 44배)

총 투자액: 5000억달러(640조원)

이사회 의장: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특징: 100% 친환경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

완공: 2025년 1차 완공, 인구 100만명 목표

슈끄지 살해 배후로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에 사우디 국내적으로는 여성의 운전 허용과 축구장 입장 허용 등 이슬람 근본주의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며 젊은층의 지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를 꾀하는 ‘비전 2030’ 정책을 주도해 발표하고, 2017년부터는 네옴시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660조 원에 이르는 네옴시티는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만 동쪽에 서울의 44배 면적 규모로 건설되는 첨단 미래 신도시다. 올해 한국 정부의 예산 607조 원보다 많다.

현재 빈 살만 왕세자는 ‘네옴시티’를 비롯해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기업의 사우디 협력 가능 사업

삼성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
스마트시티 기술 협력

SK 친환경 미래 에너지 투자

현대차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
UAM 도입, 수소차·전지 사업 진출

LG 현지 ICT 사업 확대,
수처리 필터 사업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1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한·사우디 회담 및 오찬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화물연대’도 ‘정부’도 2003년 총파업 닮은꼴

19년만에 최장기간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째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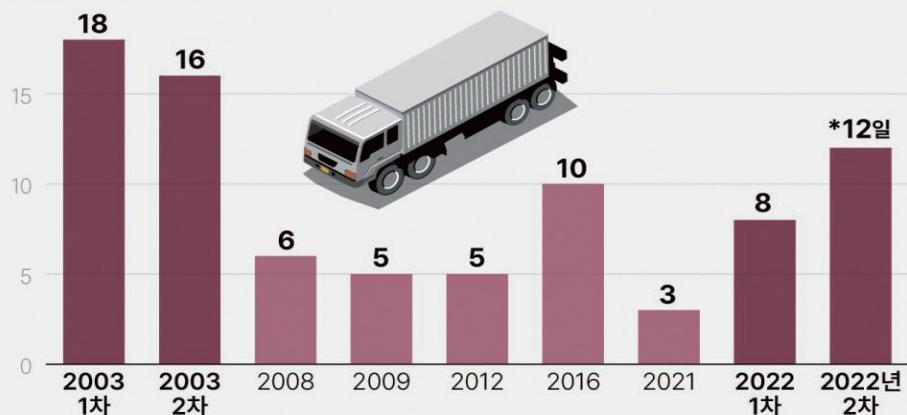
화물연대의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진 것도, 한 해 두 차례 파업을 벌인 것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대화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던 노·정의 대응 역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 파업 소요 기간

*12월 5일 현재



정부대응 비교

2003년
노무현 정부

2022년
윤석열 정부

1차 파업	
노 빛으로 사망한 조합원 계기로 운송료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	정 화물연대 요구사항 전폭 수용 후 화물차주 업무 복귀 - 경유세 정부 보전 확대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 초과근무수당비 과세 대상 포함 등
노 운송사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료 인상 협상 결렬되자 파업 돌입	정 파업 단시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 발표
정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해 업무개시명령 조항 신설	
2차 파업	
노 안전운임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	정 초기 개입 안 했으나 산업계 피해 커지자 마라톤 협상 5차례 통해 합의 - 안전운임제 연장 등
노 안전운임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	정 파업 단시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예고 - 정상적 운송 화물차주 방해 시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 자격취소 시 2년 내 재취득 제한	
종료 후 법 개정	

■ 집권 초기 1차 파업 맞닥뜨린盧·尹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올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작년 11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3일간 파업했다.

2016년에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총파업을 이어갔다.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지금의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다.

2003년 4월, 운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30대 화물차주가 빚 고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25t 트럭을 구입해 운행했지만 차할부금도 갚을 수 없었다. 이 화물차주는 화물연대 포함지부 조합원이었다.

조합원의 죽음을 계기로 화물연대는 정부 과천청사에 올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함지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물류수송을 중단했다.



2003년 파업결의 외치는 화물연대 조합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항의 노숙투쟁

2008년·2009년·2012년에도 총파업이 있었지만 5~6일 뒤엔 끝났다. 파업이 열흘 넘게 지속된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화물연대가 가장 길게 파업을 이어간 건 2003년이다.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간 화물차를 멈춰세웠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 해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여기에 전국 화물차주들이 속속 동조한 게 2003년 1차 화물연대 파업이다.

당시 출범 두 달을 갓 넘겼던 노무현 정부는 경유세 정부 보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대상 포함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며 화물차주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정부가



2003년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사태를 수습한 것 아니냐는 평 가까지 나왔다.

올해 화물연대의 1차 총파업도 정부 출범 초기에 터 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초기엔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피해 가 커졌다.

결국 정부가 적극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 토부와 화물연대가 5차례 마라톤협상을 벌여 안전운임 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뒤 파업이 해제됐다.

■ 파업 5일째 廬 보조금 중단 vs

■ 尹 업무개시명령 강경조치

2003년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1차 파업 종료(5월 15일) 3개월 만에 재연됐다. 운송사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료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서 '법

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180도 바꿨다.

'노정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파업 닷새째(2003년 8월 25일)였다. 당시엔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초강경 카드가 운송료 협상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던 유가보조금 중단이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중단 발표 다음 날엔 "물류 같은 국가 주요 기능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도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두 정부는 19년의 간격을 두고 강경 조치를 계기로 화물차주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으며, 파업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수사·조사 기관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인 점도 비슷하다.

2003년 당시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하며 강공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다.

파업 종료 이후 법 개정도 주목해 볼 지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차 총파업 이후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기사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화물차주를 방해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 또한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중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을 파업 이후 제도화한 것과 비슷한 경로로 갈 수 있다.

19년의 간격을 두고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쓰는 강공책은 ‘평행이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역대 정부의 조치에 더한 ‘초강경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어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진 상태다.

19년 전, 화물연대 안에선 여론이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건 실익이 없다는 온건파와 명분 없는 퇴각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파가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재산분할액 665억원 ‘역대 최고 경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둘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
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
주사 SK(주)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
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주) 주식 약 31만

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주)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
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
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
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
콤)와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
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위자료는 1억원 노소영, SK(주) 주식 약 31만주 상당 분할받을 듯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3억원 요구
(2019년 12월 반소)

1조 3,700억여원*,
650만주(42.29%)

위자료

재산분할 규모
(최태원 회장 보유
SK(주) 주식)

법원 1심
2022년 12월 6일

1억 원 지급
(+지연이자)

665억 원,
약 31만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보유 SK(주) 주식 1,297만여주. 12월 5일 종가 기준. <자료: 서울가정법원>

카카오 “다시는 장애 없도록…시스템 전체 철저히 이중화”



카카오는 12월 7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이프 카카오)를 온라인으로 열어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구체적 원인을 공유하고 ‘시스템 전체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카카오가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새롭게 나아간다는 취지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첫 연사로 나선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발 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전 카카오 대표)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 서비스의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소위원장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거 사태의 원인 분석, 현재의 재발방지책, 미래의 투자 3가지 관점에

서 실천 과제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원인조사 소위원회장을 맡은 이혁영 그룹 대표는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이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채영 재발 방지대책 소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시스템 전체의 철저한 이중화’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프 카카오 행사는 카카오 공동체 소속 개발자 120여 명이 연사로 나선다. 1015 데이터센터 화재 회고, 인공지능(AI), 백엔드, 클라우드, 데브옵스(개발-운영 통합), 블록체인, 데이터, 프론트엔드, 모바일, ESG, 문화 총 12개 트랙에서 106개의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이 내년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초안을 작성해주는 AI를 선보인다. 질환 판독 시간은 줄이고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초거대 AI를 의료영상 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세계 첫 사례다. 카카오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헬스케어 AI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판독 초안 솔루션 세계 첫 공개

배웅 카카오브레인 최고헬스케어책임자(CHO)는 “내년 상반기 AI를 활용한 판독문 작성 서비스를 세계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분기 국내와 유럽에서 상용화 인허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의료AI기업 뷔노 본부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카카오브레인에 합류해 헬스케어사업 부를 출범시켰다. 그가 구체적 사업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중엔 알파벳(구글 모회사)이 아이소모픽랩스를 통해 의료영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 삼아 기술 격차를 벌릴 계획이다. 3세대 AI로 불리는 초거대 AI를 활용해 서비스 활용도와 안정성도 높여나간다. 이화의료원 순천향대의료원 등과 손잡고 의료영상 데이터 2000만 건을 바탕으로 연구에 나선다. 세계 최대 규모다.

초거대 AI 자연어 처리 기술 활용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전공의 등이 ① 영상을 확인한 뒤 ② 판독문 초안을 작성한다. 의심 증상, 병변 부위 등을 알리는 문서다. 담당 교수는 이를 ③ 재검토하면서 오류를 수정한다.

국내외 AI 기업은 영상에 질환 의심 부위



‘세계 최초’ 카카오가 해냈다 공개 앞둔 ‘새 먹거리’ 정체

를 표시해주는 첫 단계에 집중했다. 판독에 걸리는 시간을 20%가량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의사들이 판독문 초안 작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기존 AI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5~10개 질환을 가려내는 데 비해 카카오는 120개 넘는 모든 폐 질환을 판독할 계획이다. 배 CHO는 “유방 촬영 맘모그래피, 복부 초음파 등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추후엔 3차원(3D)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항체 신약 개발 사업도 진출

알파벳 아마존 앤비디아 등이 진출한 신약 개발에도 뛰어든다. 카카오는 면역물질

인 항체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7월부터 국내 바이오벤처 갤럭스와 단백질 구조분석 연구를 시작했다. 알파벳이 알파폴드2를 통해 세계 생물정보학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분야다.

단백질과 항체를 분석해 독성을 낮추고 효과는 높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2027년께 새 항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선보이는 게 목표다. 유망한 후보물질을 찾아내면 갤럭스와 신약 임상시험도 할 계획이다.

‘성공률 9%, 개발 기간 10년’이라는 신약 개발 한계를 뛰어넘는 게 목표다. 배 CHO는 “3D 단백질-항체 구조예측 능력을 두 배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며 “항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거 중독됐음” 눈물 평평 정용진



1300억 베팅 빛났다

KBO 리그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개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위를 유지하는 것)’ 우승, 정규리그·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홈경기 관중 수 1위까지….

‘정용진 매직’이 통했다. SSG 랜더스는 8일 인천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4대 3으로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우승했다. ‘창단 2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우승을 확정 짓고 그라운드로 내

려온 SSG 랜더스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얼굴은 별겋게 상기돼 있었다.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팬들의 성원,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를 이뤘다.”

정 부회장은 끝까지 모든 영광을 선수들과 팬들에게 돌렸다. 선수들을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이 전광판에 뜨자 관중은 더 큰소리로 ‘SSG’를 외쳤다.



김광현과 포옹하는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그를 닮은 부캐 '제이릴리'가 함께한 모습

지난 11월 9일 정 부회장은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선수들의 행가래를 받는 사진을 올리며 ‘내년에도 이거 받고 싶음. 중독됐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7일 키움과의 5차전 경기에서 SSG 김강민의 역전 끝내기홈런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이게 야구지’라고 적기도 했다. SSG 랜더스의 완벽한 한국시리즈 우승, 그 물밑에는 구단주인 정 부회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꾸준하고 일관되게 사람부터 챙기는 그의 ‘스킨십 경영’이 빛을 냈다는 평가다.

우선 선수들에 대한 ‘통 큰 투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다. 그는 40억원을 들여 사우나시설을 완비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급 클럽하우스로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다. 야구단이 요청한 대로 김광현(4년·151억 원), 박종훈(5년·65억원), 문승원(5년·55억원), 한유섭(5년·60억원) 등 주축 선수에게 KBO 최고 연봉을 훌쩍 넘는 거액을 안기며 전력안정화를 꾀했다. 그는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데도 다년 계약을 맺는, KBO 최초 사례를 만들어냈다. 지난 7일 한국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김원형 SSG 랜더스 감독 재계약 방침을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한 시즌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감독 재계약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 감독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소문을 불식시키면서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 부회장의 리더십은 경기로 드러났다. 이날 SSG 랜더스는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다.

이뿐만 아니다. 정 부회장은 1군 선수는 물론 2군, 육성선수까지 이름을 전부 외웠다. 121명에 달하는 선수 모두를 위한 SSG 랜더스 명함과 사원증도 제작했다. 스타벅스 전 지점 할인 혜택은 물론 경기 전의 간식으로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를 준비했다. 그는 선수들을 초청해 직접 요리를 대접하고, 이따금 격려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선수들이 ‘야구장에 빨리 출근하고 싶다’고 해요.” 실제로 신세계그룹 관계자가 귀띔한 얘기다. SSG 랜더스의 우승으로 야구단과 연계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탄력이 붙었다. 정 부회장의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야구장을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단순히 야구를 보는 것을 넘어 각종 이벤트로 짊은 연령대의 신규 팬들을 유입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이마



이제 정 부회장은 본격적으로 본업인 유통과 야구의 결합을 죄를 전망이다. 그는 10년 전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소비자들을 팬으로 만들고, 그들의 지갑보다 시간을 뺏는 게 유통업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2027년 스타필드 청라와 연계한 SSG 랜더스 청라 돔구장까지 완공되면 쇼핑센터와 결합된 신개념 복합 시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SSG 야구와 유통을 연계한 굿즈와 캐릭터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주요 계열사 핵심 고객으로 연결되도록 ‘신세계 유니버스’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게 정 부회장의 진짜 목표다.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는 신세계 이마트 브랜드인



11번가, 첫 여성 CEO에 안정은 최고운영책임자

11번가는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안정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11번가 첫 여성 CEO가 될 안 내정자는 향후 이사회를 거쳐 하현일 사장과 각자 대표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안 내정자는 야후코리아, 네이버, 쿠팡, LF 등을 거친 e커머스 서비스 기획 전문가로 11번가에는 지난 2018년 신설법인 출범 시기에 합류해 서비스 총괄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다. 안 내정자는 11번가에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라이브11’, 동영상 리뷰 서비스 ‘꾹꾹’ 등을 담당했다.

올해 초 COO 취임 이후에는 11번가 익일배송 서비스 ‘슈팅배송’,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한잔’ 등 신규 서비스 기획에 참여했다.

안 내정자는 “아마존 글로벌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극대화해 11번가 소비자가 최상의 쇼핑경험을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은 내정자

향후 11번가는 하 사장은 기업 가치 증대에, 안 내정자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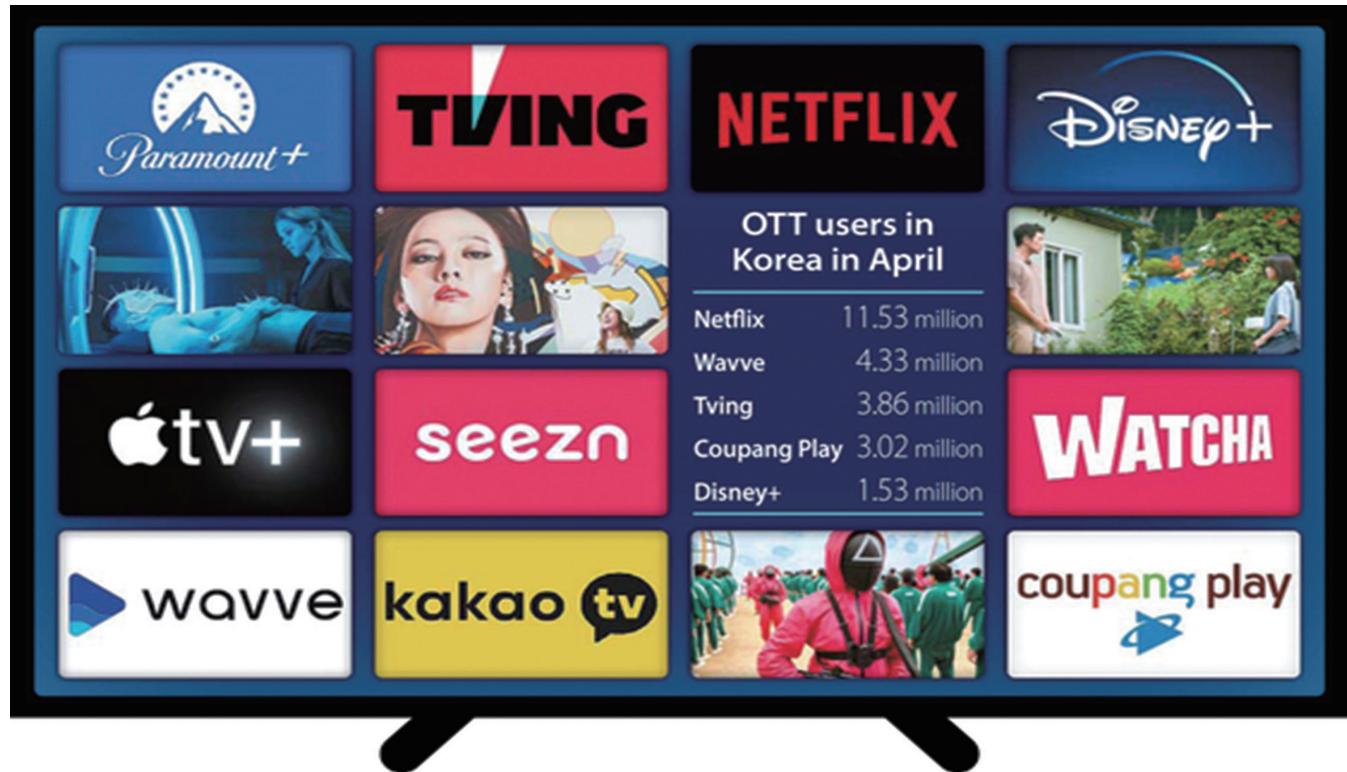
LG그룹 첫 여성 전문경영인에 이정애 부사장



이정애 부사장



LG그룹에 첫 여성 전문경영인 사장이 탄생했다. LG생활건강이 리프레시먼트(음료)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애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내정하면서다. LG그룹 공채 출신인 이 사장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장급 대표가 된 첫 여성 전문경영인 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1986년 LG그룹 공채 출신으로 LG생활건강에 입사해 생활용품과 럭셔리 화장품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2011년 생활용품사업부장 선임 후 시장 1위를 확고히 다진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럭셔리 화장품 사업부장을 맡아 ‘후’ ‘숨’ ‘오휀’ 등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힘 쏟았다.



Over the Top : “셋톱박스(Top)을 넘어”

국내외 OTT 힘겨루기 점입가경

국내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 시장을 두고
토종 및 글로벌 OTT 업체들이 인수·합병(M&A),
기존 구독료의 ‘반값’에 가까운 새 요금제 출시,
국내 톱 배우들이 출연하는
K-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 등을
선보이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CJ ENM 자회사인 티빙이 지난 1일 시즌(KT계열)을 흡수합병했고, 국내 OTT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중간에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구독료가 월 5,500원(기존 9,500원)인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았다.

‘슈퍼 루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를 열고 올해 말과 내년부터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선보일 13개 이상의 한국 작품들을 소개했다.

자금난에 매각설이 나온 토종 OTT 왓챠는 영화·드라마 중심의 기존 OTT에 구독료 추가 없이 웹툰까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 인터넷TV(IPTV) 3사 중 유일하게 OTT가 없었던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가입자에 제공하던 5만여 편의 키즈 교육 콘텐츠 '아이들나라'를 지난달 OTT로 재편해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OTT 시장을 두고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지난 1일 티빙은 시즌을 최종 합병해 새롭게 출발한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OTT의 시장 점유율(올해 1~9월 평균 실사용자 기준)은 넷플릭스 38.2%, 웨이브 14.4%, 티빙 13.1%,

명)은 시즌(124만명)을 합병하기 전인데도 웨이브(416만명)를 이미 앞섰다.

티빙은 기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 한달간 시즌을 더 유지하다가 오는 31일자로 완전 종료하기로 했다. 티빙은 이 기간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진행해 시즌 이용자들이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티빙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OTT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 기존 기본 구독료(월 9,500원)보다



디즈니 플러스 '커넥트'와 티빙 '술도녀2' 포스터

쿠팡플레이 11.8%, 디즈니플러스 5.6%, 시즌 5%다. 국내 3위였던 티빙이 시즌 이용자들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18.1%(티빙 13.1%+시즌 5%)로 웨이브(14.4%)를 뛰어넘어 2위로 도약한다. 모바일인덱스의 10월 실사용자 조사 결과에서 티빙(430만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나머지 OTT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2국에 출시된 이 요금제는 가입자가 콘텐츠 재생 전과 중간에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구독료를 월 5,500원만 내면 된다. 1시간 영상 콘텐츠 기준으로 4~5분짜리 광고를 봐야하지만, 이용

**12월 1일 티빙(CJ ENM), 시즌 최종 합병…이용자 그대로 흡수할 경우 국내 2위
넷플릭스, 중간 광고 시청 조건 구독료 월 5,500원 파격적인 요금제 선보여
슈퍼 루키 디즈니 플러스,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라인업 공개…“콘텐츠로 승부”
LG유플러스 키즈 콘텐츠 아이들나라 OTT 출시…왓챠, 웹툰 콘텐츠도 서비스
LG유플러스-왓챠 지분 인수 추진 중…“성사 시 시너지 효과”**

자는 기존 기본 구독료보다 절반 가격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 유지는 물론이고 신규 구독자 유치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5,000원대 요금제가 국내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나 수익 면에서 성공할 경우 토종 OTT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출시 1주년이 지난 ‘슈퍼 루키’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말과 내년 안에만 K- 오리지널 콘텐츠를 13편 이상 공개하기로 선언하면서 오징어게임과 디

피(D.P.), 지옥, 수리남 등의 K-콘텐츠 히트로 글로벌 OTT 1위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디즈니플러스는 마케팅이나 저렴한 요금제 대신 킬러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올해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에서는 마블 스튜디오(Marvel Studios),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픽사(Pixar), 루카스필름(Lucasfilm) 개봉 예정작과 디즈니 플러스 및 핫스타(Disney+ Hotstar)에서 공개될 아태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등 50

국내OTT 활성 이용자 수

2022년 10월 기준



여개의 새로운 작품이 발표됐다.

디즈니의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중 최고 기대작은 단연 ‘카지노’다. ‘카지노’는 돈도 빼도 없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최민식 분)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인생의 벼랑 끝 목숨 건 최후의 베팅을 시작하게 되는 강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는 21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최민식에 이어 배우 손석구, 이동휘, 허성태 등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및 국내 대형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인 CJ ENM의 OTT 티빙의 공세에 틈새 시장을 노린 키즈 교육 특화 OTT도 새롭게 시장에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OTT ‘아이들나라’를 새롭게 재편해 론칭했다. 아이들나라는 원래 지난 2017년부터 자사 IPTV 가입자에 제공되던 키즈 교육 콘텐츠 서비스였다. 누적 이용자 수가 6,1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어린이와 부모에게 인기를 끌었던 LG유플러스의 시그니처 서비스였다. 이를 LG유플러스는 월 구독료만 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OTT로 재탄생시켰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자사 IPTV 가입자들만 앱에 연동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월 구독료만 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완전한 OTT로 탈바꿈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OTT 아이들나라의 경우 2027년까지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토종 OTT 왓챠는 최근 자사 OTT에서 웹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추가 결제 없이 웹툰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다. 기존 인기 웹툰은 물론, 유명 작가들의 신작까지 볼 수 있는데, 웹툰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드라마·영화 위주의 동영상 서비스가 아니라 종합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왓챠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왓챠에 투자를 검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왓챠 기업가치를 수백억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금액은 조율 중이지만 이번 거래가 진행되면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대주주에 올라설 전망이다.

2011년 설립한 왓챠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메인 서비스로 하다가 2016년 자체 OTT 서비스인 ‘왓챠페이지’를 선보였다. 올해 들어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투자유치가 지연되면서 왓챠는 지난달 박태훈 대표가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부에서 38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책정된 기업가치는 78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전환사채(CB) 발행으로 49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3,38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실시간 방송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주문형 비디오(VOD) 등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IPTV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OTT 아이들나라도 새롭게 론칭했다.

OTT 등 미디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여러 OTT를 자사 IPTV 플랫폼으로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콘텐츠 평점이나 추천 서비스 등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강점인 왓챠를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옥철’ 9호선 과밀 줄인다…2024년 초까지 48칸 추가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전동차 48칸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로 일반열차(95.1%)의 1.6배 수준이다. 혼잡도는 지하철 한 칸의 정원을 160명으로 보고 160명이 탔을 때 100%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는 한 칸에 약 249명이 타는 셈이다.

9호선 열차는 처음에 4칸이었으나, 2015년 3월 2단계 구간을 개통한 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6칸 열차를 투입했고 2019년 11월 모든 열차를

6칸으로 바꿨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이 줄면서 급행열차는 150%, 일반열차는 86%로 평균 혼잡도가 낮아졌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기도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다시 혼잡도가 심해지는 추세다.

이에 시는 전동차 48칸을 새로 제작해 2024년 초까지 추가 투입하고 급행열차 혼잡도를 평균 150%에서 120%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전동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1호 차가 내년 3월 완성돼 나온다. 나머지 차량도 내년 말까지 모두 입고될



출근길 빽빽한 지하철...

지하철 9호선⁹ 48칸 추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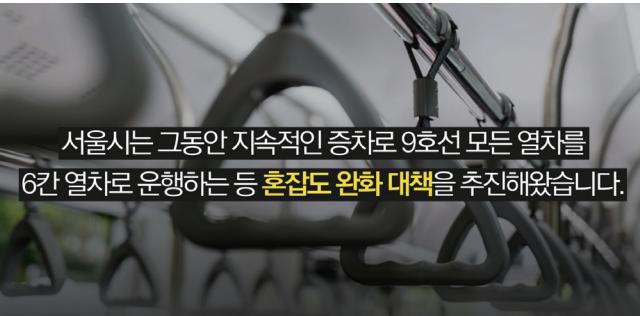
예정이다. 이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운행에 투입된다.

9호선은 현재 6칸 차량이 45편성으로 운행 중인데, 한 편성의 전동차 칸수를 늘리려면 기존 6칸을 기준으로 건설된 기계 설비와 신호시스템을 개량하고 유치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필요해 2032년이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편성당 칸수를 늘려 8칸으로 운영하면 앞차와의 간격이 줄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더 필요해 우선 6칸 열차를 증편하는 방식을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9호선 중에서도 혼잡도가 특히 높은 주요 역사에는 출근 시간대 역무원, 안전요원 등 인력 39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게 한다.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김포공항, 염창, 당산, 여의도, 노량진, 고속터미널역이 대상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열차 칸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부착·게시하고, 승차 지점 바닥에는 네 줄 서기 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증차로 9호선 모든 열차를 6칸 열차로 운행하는 등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완화 및 지하철 경기도 연장 등으로 이용수요와 혼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 862억원 투입해 지하철 9호선 48칸 증편!

급행열차 혼잡도 대폭 완화 전망 (150%→120%)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안전인력 39명 집중 배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예정



티커를 명확하게 붙이기로 했다. 무리한 승차 금지를 위한 안내방송도 강화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도 탑승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웃 조금만 배려하면 함께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월 3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국 어느 시인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라며 질문으로 축사를 시작했

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빵공장에서는 스물세 살 젊은 여자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치판에서는 끝없이 싸우고 있다”며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구조 속에서 영국 시인이 얘기하는 평화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포용과 상생,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청년 도의원들과 만나 “도정 전반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소속 도의원 17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 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은 연령 측면도 있지만, 나이 먹어도 청년인 사람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도전, 시도, 창의와 같은 청년의 힘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희 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은 “청년 도의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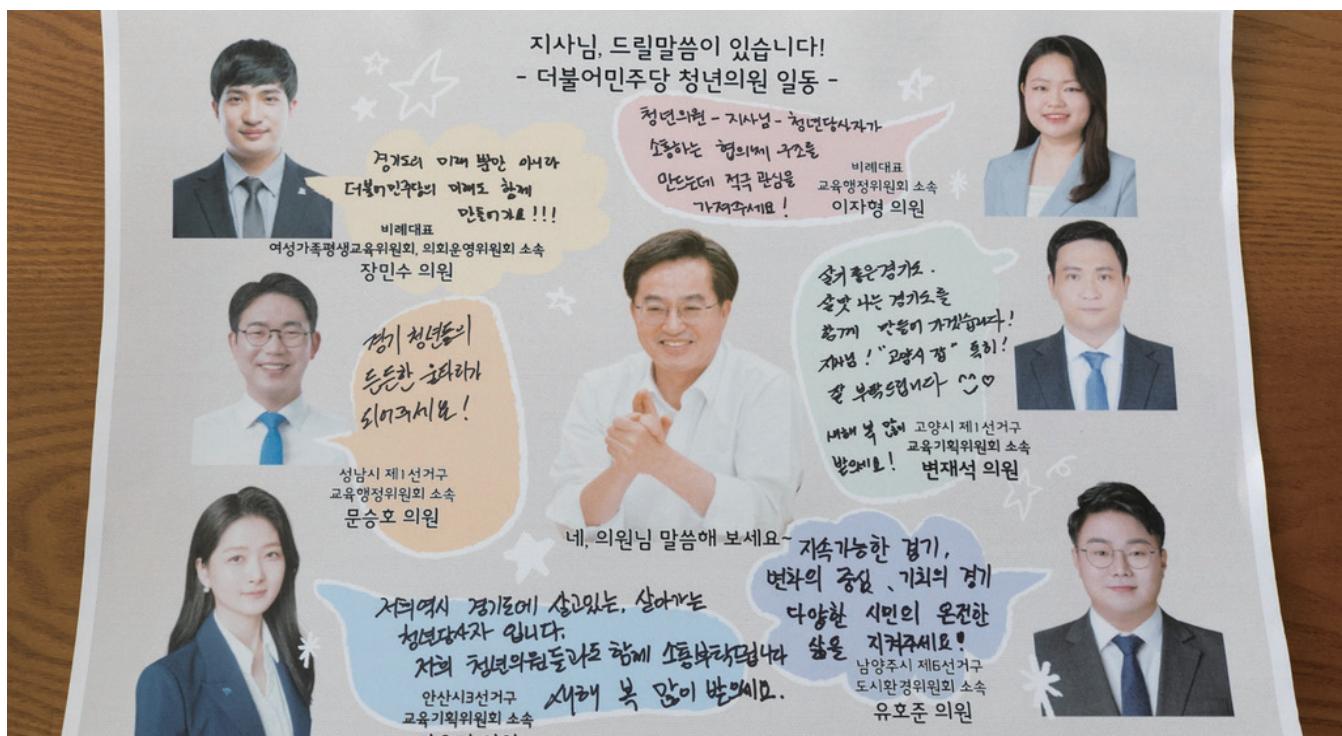
은 당을 떠나서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에서도 청년 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청년이라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뒤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분기별로 만나자고 화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도의원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 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다음 달에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 도의원들 만난 김동연 “도정에 유쾌한 반란 일으켜달라”



김동연 지사, 민주당 청년의원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방세환 광주시장, 베트남 주석과 협력 논의

경기 광주시, 12월 6일 ‘베트남의 날’로 선포…감사패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12월 6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와 방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역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한 후 광주시청을 찾은 푹 주석과 환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역동성과 잠재력으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증진하고 포

괄적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베트남분 3만8천명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푹 주석은 “경기도는 한국의 중요한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이고 특히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양국 지방 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 관광, 교육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왼쪽에서 세번째)은 6일 오후 경기 광주시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오른쪽), 주임록 광주시의장과 환담을 나눴다.

희망도시
행복광주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방 시장은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며 푹 주석에게 교류의향서를 전달했다.

방 시장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베트남 판로 확대 등을 모색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푹 주석 방문을 기념해 매년 12월 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하고 광주시 방문 감사패도 전달했다.

방 시장과 푹 주석은 곤지암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고,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한·베트남 합동 전시회와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4일 국빈 방한



했다.

푹 주석은 광주시 방문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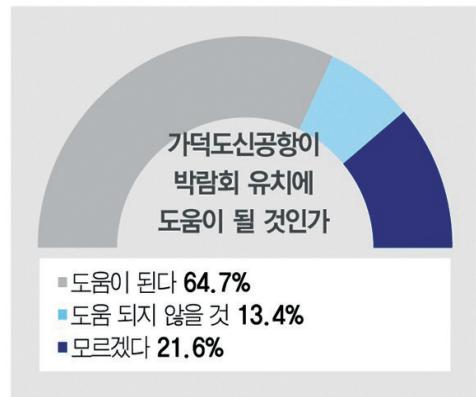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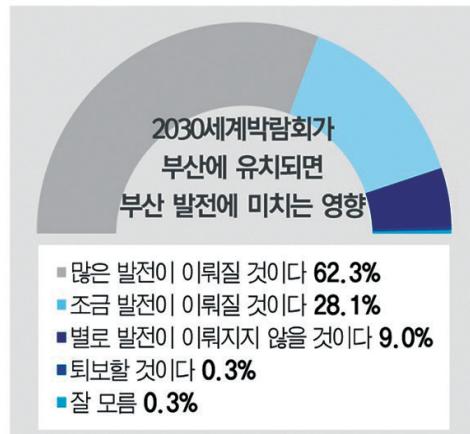
2030세계박람회 유치 ‘전력’ 글로벌도시 인프라 ‘착착’

민선 8기 시정은 올 한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시민이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만들기에 전력했다. 도시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혁신도시,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 같은 도시목표 실현에 온 힘을 쏟았다. 도시 발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 주도의 도시 외교 외연을 크게 확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도 따뜻하게 펼쳤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같은 문화공간도 확충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부산 발전 큰 기여”

시민 10명 중 9명 ‘긍정 효과’ 기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9명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2~25일 부산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울산·경남 공동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면 부산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금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답한 결과(28.1%)를 포함하면 부산시민의 90.4%가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가덕도신공항이 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7%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4%, ‘모르겠다’는 21.6%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민이 많은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2030세계엑스포 3차 PT 압권이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외로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가 성공적이었다며 본격적인 교섭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다양한 유치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기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짧은 기간에 최대의

교섭효과를 낼 수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최우선으로 본국 및 다른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교섭 활동에 주안점을 뒀다.

박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브라질, 아이티, 파라과이, 페루 측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 날에

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유럽 지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각국 BIE 대표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2030 세계박람회가 왜 부산에서 개최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지시각으로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차, 2차 프레젠테이션(PT)과는 달리 연사로는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과 동행하며 이날 참석한 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하나

된 한국(one team Korea)’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 시켰다.

PT은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 시까지 총 5회 진행되는 데 이번 3차 PT를 계기로 반환점을 돌아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PT에 대해 박 시장은 “그야말로 압권”이라며 “경쟁국과 비교해 추상적이지 않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현장에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총회 참석에 이어 다수의 BIE 대표들이 상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부산을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시각으로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에이에프피(AFP), 톰 트래블 매거진(Tom Travel Magazine), Le Figaro(르 피가로) 등 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순차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각 언론사는 부산의 강점, 부산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



171차 BIE 총회 참석…말리·브라질·파라과이 등 만찬간담회 진행 AFP·르 피가로 등 언론인터뷰서 부산 개방성·포용성·역동성 피력

유 등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개방성, 포용성, 역동성, 성장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부산이 가진 경쟁력을 피력했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부산의 도시 비전이 ‘그린스마트 도시’임을 앞세워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것임을 알리며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개최부지 ‘부산북항’과 그 앞 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엔(UN) 해비타트 해상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인터뷰는 에펠텁 세느강변에 유람선을 정박시키고 조성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선 ‘크루즈 82’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박 시장은 프랑스 파리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해 유럽권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다.

박 시장은 “이번 프랑스 출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리 전역을 부산으로 물들이는 성공적인 방문이었다”며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특사단장이자 개최 후보도시 시장의 자격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이 11월 29일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체키치 차우세비치 외교부 차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막식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박람회 맨 처음
인연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조선관' 설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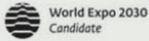
1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엑스포 사랑.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응원해 주세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단이 세계 곳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 찾아 국비 확보·신공항특별법 협조 촉구



이철우(사진 우측) 경북도지사가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월 28일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등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등 핵심 간부들을 만나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국회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동해안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설계를 위한 국비 180억원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

체 영남권 벨트 구축, 국립 세계 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제대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이전부지 선정의 감동을 다시 한번... 대구경북시도민의 하나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북의 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신공항 어떤 사업인가요?

통합

군공항 K2+
민간 대구공항
함께 옮겨

신공항

경북에
새롭게 짓는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년~2028년
 - 규모 15.3km²/463만평 (현 부지 2.3배)
 - 사업비 약 9.27조원 (민간공항 사업비 별도)
 - 사업방식 군·민간공항 동시시작 및 개항
- 군공항 :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상여 방식 **민간공항** : 기존 부지 매각대금 + 정부재정



통합신공항의 미래 비전은?

새로운 통합신공항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충분한 규모의 경제·물류공항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긴 활주로 (3,500m)
연간 1000만 수용 여객터미널, 연간 26만톤 처리 화물터미널

접근하기 좋은 공항



대구경북 어디서나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등

4차산업 기반 스마트 공항



신속한 출입국 프로세스 (생체인식 탑승수속, AI 활용 보안검색)
효율적인 공항 운영(빅데이터 기반 여객관리, IoT 기반 시설관리)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대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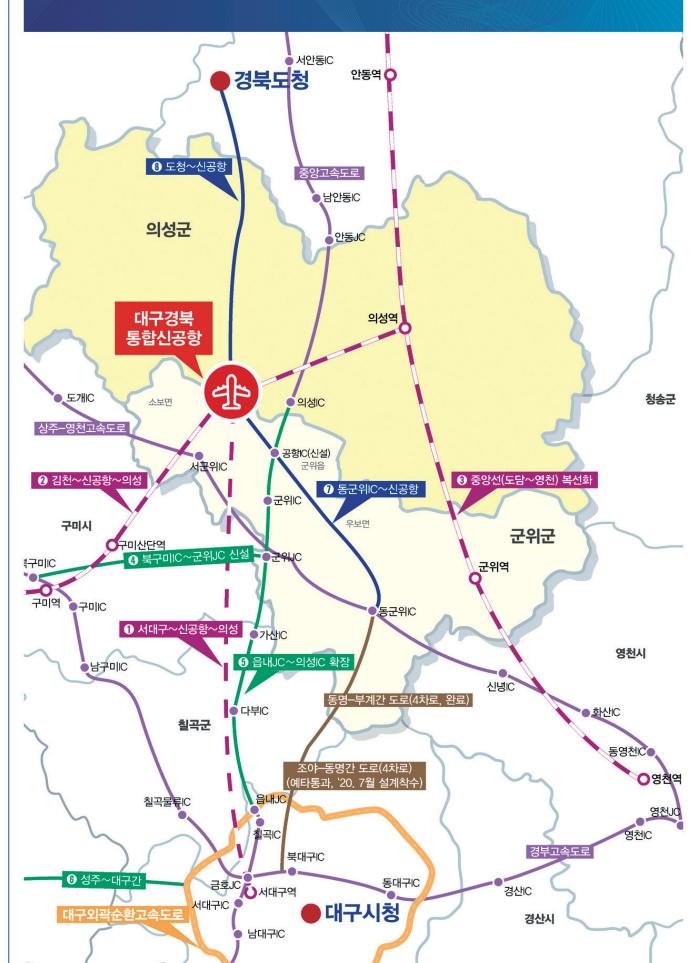
※ 대경연구원 연구자료(2020.07)

공항건설만 9조
공항신도시 등 수십조 투입
**상상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통합신공항의 광역교통망





구미시가 내년도 예산 2조 원 시대 개막과 새로운 조직개편 등 혁신을 통한 마부위침 시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사자성어로 꾸준한 노력 끝에 성공의 결실을 본다는 뜻으로 우공이산(愚公移山)과 비슷한 뜻이다.

이러한 시정 방향은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263회 제2차 구미시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나타났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구미의 내일을 희망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구미 재도약이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운동화끈을 조여 매고 마부위침 정신으로 정부 중

양부처인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국회 등 관련부처를 문턱이 높도록 뛰어다녔다”고 밝혔다.

이처럼 치열하게 뛰어 다닌 결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구미발전에 천군만마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투자도 ▲LG 이노텍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협약 ▲향후 1조3천억원대의 대규모 투자유치 소식 ▲지역 방산업체 증설의 걸림돌 제거등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분야 총 1조9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도 끌어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후 반년도 채 안 된 시점의 이런 팔목 할 만한 성과는 침체한 구미산업의 부흥을 위한 절박한

심정의 노력과 정부 부처 장관님들의 잇따른 구미 방문 등 향후 구미투자 유치 3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새해에는 더욱 분투 노력해 꼭 성사 되도록 구미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이런 대규모 투자유치에는 시장 혼자서는 ‘새 희망 구미시대’를 열어갈 수 없어 41만 구미시민들과 의회, 1800여 명의 공직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미 재도약을 위한 공직사회 인사, 조직, 문회 등 혁신으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무원 기 살리기에 나갈 것도 천명했다.

구미시는 투자 유치 30조 원 시대와 함께 예산 3조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8기 시정성과를 기념

하는 시금석이 될 내년도 예산은 총 1조8천여 억원(일방 회계 1조5000억원, 특별회계 3187억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1조5060억원 대비 20.9%(3148억원) 증가했다.

특히, 김시장은 임기 중 예산 3조 원 시대를 열고자 중앙 부처 방문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생태계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인구 증가 등 소비력을 높여 선순환 경제구조에 앞장서 침몰하는 구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해에는 구미시가 대전환기에 들어서 혁신경제, 낭만문화를 기반으로 경제와 청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새희망 구미시대를 열어 옛 명성을 되찾도록 전력 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희망 구미시대’ 현장 소통 시장실 두 번째 방문을 실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2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축구대표팀과 만찬

“꺾이지 않는 마음, 큰 울림 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월 8일 저녁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시간여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해 인사를 나눴다.

**FIFA WORLD CUP
Qatar2022**



윤석열 대통령은 부상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라고 물었다. 또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에게 “헤딩 너무 잘 봤어요”라며 크게 웃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는 “우리 감독님 고맙습니다. 저도 2002년에 문학경기장에서 포르투갈 경기하는 거 직접 봤습니다. 직접 뛰셨다면서요. 끝나고 같이 보러 간 사람들끼리 얼마나 파티도 하고 그랬는지…”라며 반겼다.

이 자리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전 승리 때 착용한 노란색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 왼팔에 직접 채워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하겠다”라며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윤 대통령 환영 인사,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오른쪽에 벤투 감독이, 김 여사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각각 앉았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여러분은 우리 국민에게는 이 월드컵 우승팀”이라며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이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힘든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셨고, 여러분의 투혼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는 세계 인류의 공통 언어인 동시에 노래이자 춤이다. 축구를 통해 세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넘어 평화의 전도사”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러분의 축구 인생에서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대표해 고생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소찬이나마 함께하고 고생한 얘기를 좀 듣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 월드컵에선 더욱 좋은 조건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정부를 대표해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말 도중 감격한 듯 목이 메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단과 벤투 감독님의 건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기간 착용했던 주장 완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워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트래핑하고 있다.

이에 벤투 감독은 “대표팀에서 4년이 좀 넘는 긴 여정이었는데, 같이 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시고 환영해주신 대통령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의 여정 동안 굉장히 행복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커리어에도 행운이 있기를 빈다. 한국 국민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빈다”고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4년 동안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선수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환영을 받았다”며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은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답례로 친필 서명과 함께 ‘Again Korea (다시 대한민국) 카타르 16강 진출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적은 대표팀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수들의 사인 축구공을 가슴으로



환영 만찬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 및 선수단, 코치진 등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환영 만찬에서 친필 사인하는 윤 대통령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과 건배하고 있다.

받아 트래핑하는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면서 울컥해 했다"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경기를 떠올리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자긍심과 격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직접 "벤투 감독님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을 외쳤다. 조규성 선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수들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보쌈이 주메뉴로 나온 만찬에는 21명의 선수단과 코치진, 조리사와 팀 닥터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국가대표팀이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카타르에 나가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실무 협의까지 했으나, 결국 현지에서 국가대표팀 귀국을 위한 2개 노선의 민항기 항공편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도하는 축구로 ‘원정 16강’
결과로 증명하고 떠나는 벤투**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이라는 새 역사를 쓴 벤투호의 항해가 끝났다.

지난 4년여간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53)과 한국의 동행도 마침표를 찍는다.

2018년 8월 23일 우리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취임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사 최장 재임 감독이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한축구협회(KFA)는 벤투 감독에게 역대 최고 연봉(25억원)과 최장기 계약(4년 6개월)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파격 대우를 받은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로, 자신에게 지휘봉을 맡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벤투 감독은 2003~2004년 대표팀을 이끌었던 움베르투 코엘류 이후 14년 만에 한국의 사령탑에 오른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다. 또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채우며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선 감독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은 약 4년 동안 자신의 전술이 온전히 담긴 팀을 만드는 데 집중해 월드컵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주도하는 축구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세계 축구의 중심 유럽에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로 넘어온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입힌, 그만의 축구 철학과 색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알아본다.

악연(惡緣)에서, 선연(善緣)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은 1969년 6월 20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지역의 유소년 클럽에서 축구를 시작한 그는 1991~1994년 비토리아 SC에서 뛰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벤투 감독은 비토리아 SC에서 3시즌 동안 리그 95경기에 출전해 13골을 기록했고, 이런 뛰어난 활약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 입성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1996년 포르투갈의 명문 구단 SL 벤피카로 이적해 2시즌을 소화했다. 이어 스페인의 레알 오비에도에서 4시즌을 보낸 그는 2000년 자신의 고향 팀인 스포르팅 CP로 이적했다. 벤투 감독은 스포르팅 CP 선수로 활약하며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벤투 감독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ту갈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A매치 35경기를 뛰었다. 그는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주앙 핀투, 세르지우 콘세이상, 파울레타 등과 포르ту갈 황금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다.

벤투 감독은 만 33세 나이로 ‘2002 한국·일본 월드컵’에 출전, 한국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도 활약했다. 당시 한국은 박지성의 결승골로 포르ту갈 황금세대를 제압했고, 벤투 감독은 이 경기를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16년이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자신의 은퇴 경기에서 패배를 안겼던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이 됐다. 악연(惡緣)으로 얹혔던 한국과의 관계가 선연(善緣)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를 두고 벤투 감독은 KBS 다큐멘터리 ‘로드 투 카타르’에서 “과거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했는데 한국에 패해 탈락했다”며 “포르ту갈 대표팀으로서 마



‘2002한·일 월드컵’ 포르투갈 전 당시 벤투 감독 모습

지막 경기였다. 내 은퇴 경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2년 (선수로) 월드컵에 참가한 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며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감독으로의 전성기…그리고 중국行 내리막까지

벤투 감독은 선수 은퇴 후 곧바로 스포르팅 CP 유소년 팀 감독을 맡았다. 이후 그는 2005-2006 시즌 스포르팅 CP의 주제 폐세이루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자, 1군 감독으로 승격됐고 10연승을 이끌며 팀을 부진의 늪에서 구했다.

스포르팅 CP는 벤투 감독의 안정적인 지도 아래 포르ту갈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도력을 인

정받은 벤투 감독은 2010년 포르투갈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선택받으며, 자신의 감독 전성기를 열게 된다. 벤투 감독의 포르투갈은 ‘UEFA 유로 2012’에서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유로 2016’ 예선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며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지휘봉을 내려놨다. 그의 포르투갈 대표팀 기록은 44경기 24승 11무 9패(승률 55%)다.

이후 벤투 감독은 브라질 리그와 그리스 리그를 거쳐 중국 리그로 떠났다. 그는 2017년 중국의 충칭 당다이리판 감독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선수들과의 불화, 성적 부진 등 이유로 7개월 만에 경질되며 흑역사를 남겼다. 이 중국 리그 감독 경력은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거론될 때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에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 중국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구단에서 설정한 목표는 1부 리그 잔류였다. 내가 팀을 이끌며 시즌 중 한 번도 강등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는 환경이 (유럽과) 달랐고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했다.

풍파에도 변함없던 벤투…결과로 보여주다

벤투 감독은 수비를 중시하며 직선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던 한국 대표팀에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의 전술을 도입했다. 골키퍼까지 포함한 수비 라인이 상대의 압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발 밑 패스를 구사, 중원 지역까지 공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빌드업 과

정을 중요시했다.

많은 팬과 전문가 등은 벤투호의 전술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 등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경기가 많지만, 유럽과 남아메리카 등 전통의 축구 강국이 다수 포진된 월드컵 본선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주도하는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경기가 시작되자 여론은 변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등 내로라하는 강팀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실력을 선보이며 경기를 주도했다. 결국 벤투호는 H조에서 1승 1무 1패(승점 4)의 기록으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축구 팬들은 역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화룡점정을 찍은 벤투호에 대해 호평을 남기며,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마무리한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패한 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과 감독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결별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9월 결정을 내렸고 선수들, KFA 회장 등에게 이를 말했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4년여간 벤투 감독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 축구는 새 역사를 썼다. 그로 인해 국민이 받은 즐거움과 감동은, 20년이 훌러도 여운이 느껴지는 2002년 월드컵의 그것과 같이 잊히지 않을 것이다.





‘캡틴’ 손흥민의 세 번째 질주 마무리

4년 뒤에도 볼 수 있을까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의 세 번째 월드컵이 끝났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완패했다.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한 태극전사들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무대를 밟았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열심히 싸웠지만, ‘세계 1위’인 브라질의 기량에 완벽하게 밀렸다.

높은 벽을 넘지 못한 대표팀은 아쉬움을 삼켰다. 사흘 전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았던 손흥민

도 웃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에 나선 손흥민에게 이번 대회는 더 간절하고 각별했을 터다. 그는 지난달 초 소속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를 치르다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충돌해 안와 골절상을 당했고, 월드컵 개막을 약 3주 앞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월드컵 출전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듯했지만,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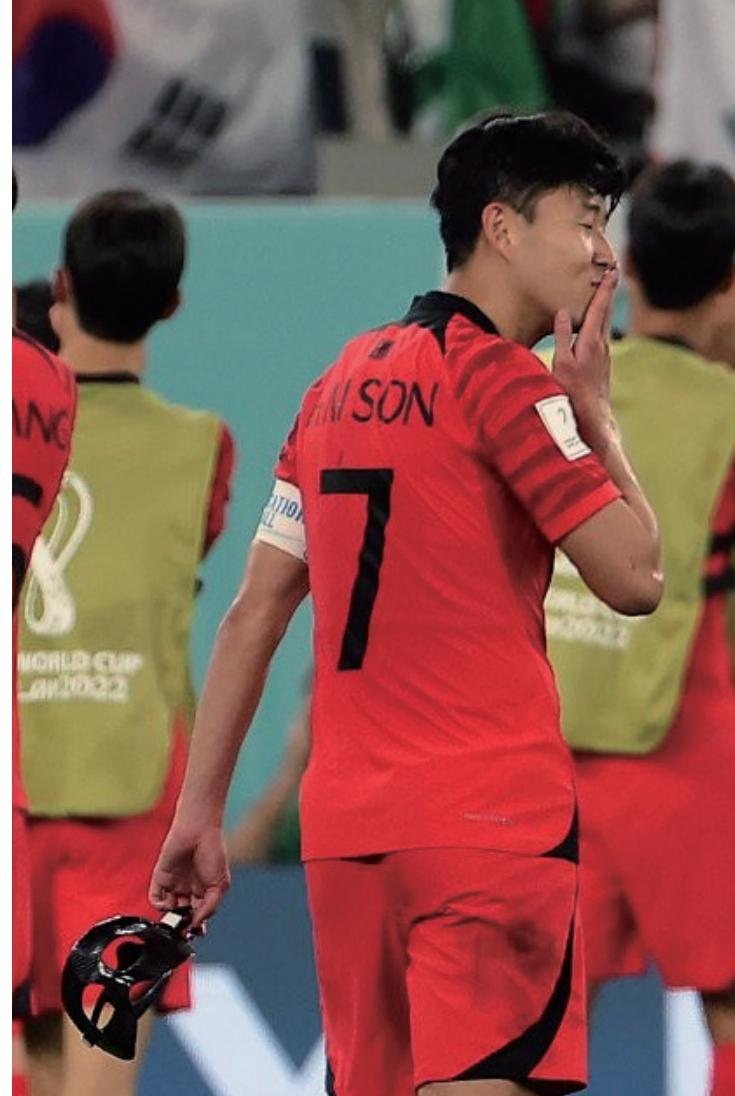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뛰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드러냈고, 얼굴을 보호하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대표팀 손흥민이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를 쫓고 있다.



안면보호대를 착용한 대표팀 손흥민이 헤더로 공을 걷어내고 있다.



1-4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이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 베커의 위로를 받은 뒤 답례하고 있다.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는 헤딩을 시도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고 달리는 모습도 보였다. 투혼을 펼친 그는 3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2-1 승)에선 폭풍 드리블과 절묘한 패스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브라질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기약해야 한다.

손흥민은 이제 네 번째 월드컵을 준비한다. 4년 뒤면 34세가 되지만, 충분히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다.

축구계의 ‘양대 산맥’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폴란드), 올리비에 지루(36·프랑스),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다.

브라질전을 마친 손흥민은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 “그건 내 능력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거다. 나라가, 대표팀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한 몸을 바칠 생각이 분명히 있다. 4년 동안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올해의 그룹 3년 연속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을 결산하는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 부문 등 3년 연속 수상, 건재함을 과시했다. 12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에서 개최된 ‘2022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 ‘올해의 콘서트 투어’,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BTS는 특히 ‘올해의 그룹상’ 부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쥐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재차 입증했다. 해당 부문은 블랙핑크를 비롯해 콜드플레이, 원리퍼블릭, 이매진 드래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부문이라 이번 수상이 더욱 값지다.

방탄소년단은 또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로 ‘올해의 콘서트 투어’ 부문을 수상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3개 도시에서 총 11회 개최된 이 공연은 약 45만 8000명의 관객을 모아 미국 빌보드 박스스코어 ‘톱 투어’ 부문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공연은 빌보드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연말 결산 차트에서 ‘톱 투어’ 27위에 랭크됐으며,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는 ‘톱 박스 스코어’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올해 전 세계에서 펼쳐진 다수의 팝스타들의 공연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방탄소년단의 낭보는 팀 수상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 발표된 정국과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 (Feat. Jung Kook))’는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곡은 발매 후 꾸준히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며 사랑받아 빌보드의 2022년 연말 결산 차트에서 ‘빌보드 글로벌 200’ 106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0위에 오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6월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발매를 기점으로 그룹 활동보다는 멤버 개별

활동에 집중했다.

7월 멤버 제이홉이 솔로 앨범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정국은 찰리 푸스 피처링을 비롯해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 가창자로 나서는 등 홀륭한 성과를 냈다. 진과 RM은 각각 솔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지민 역시 OST 등으로 사랑받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각국에서 대면 공연이 재개되면서 지난해부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를 진행, 공연형 아티스트로서도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3월, 10월 두 차례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특히 10월 공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차원의 '옛 투 캠' 타이틀로 치러져 의미를 더했다.

이같은 쉼 없는 행보에 힘입어 방탄소년단은 각종 해외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트로피를 휩쓸며 '글



BTS 정국과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Feat. Jung Kook)'는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 부문에서 수상했다.

로벌 슈퍼스타'의 저력을 입증했다. 지난달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도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과 '페이보릿 K팝 아티스트' 등 2개 부문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또 내년 2월 개최되는 '제65회 그래미 어워드'에는 3년 연속 노미네이트 됐다. 방탄소년단은 콜드플레이와 함께 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옛 투 캠' 뮤직비디오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됐다. 3년 연속은 K팝 가수 최초의 대기록이며, 2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된 것 역시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현재진행형 성장 행보를 짐작하게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3일 맏형인 멤버 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군 복무에 돌입한다. 진은 이 날 경기도 연천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18개월간 육군 현역으로 복무한다.



- ### 2022 • 올해의 그룹
- 올해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 - 정국 & 찰리 푸스)
 - 올해의 콘서트 투어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2021



- 올해의 그룹
- 올해의 노래 (버터)
- 올해의 뮤직비디오 (버터)

2020



- 올해의 그룹
- 올해의 노래 (다이너마이트)
- 올해의 앨범 (맵 오브 더 솔: 7)
- 올해의 뮤직비디오 (다이너마이트)

2018



- 올해의 그룹
- 올해의 노래 (아이돌)
- 올해의 뮤직비디오 (아이돌)
- 올해의 소셜 셀러브리티

신보 ‘사랑할 때’ 낸 조수미

“첫사랑의 애틋함 전해드리고파”

“제가 울어서 지금 목소리가 좀 결절해요.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축구 팬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사랑과 감사, 존경심을 보냅니다.”

‘국민 소프라노’ 조수미는 새 앨범 ‘사랑할 때 (in LOVE)’ 발매를 기념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축구 질문해주실 분 안 계시냐”며 운을 뗀뒤 이같이 말했다.

조수미는 “월드컵을 4년에 한 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8강 진출 실패로) 이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못 보겠지만, 흥미진진한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컨디션 조절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월드컵 때문에 약속을 안 잡을 정도예요. 축구는 음악 못지않게 삶의 기쁨이지요. 음악이나 스포츠나 서로를 연결하는 유니버설 랭귀지(만국 공통어) 같은 거잖아요.”

조수미는 이날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 가요, 크로스오버, 가곡까지 아우른 신보 ‘사랑할 때 (in LOVE)’를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발매했다.

깊은 감정과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마중’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홍진호와 합을 맞춘 ‘연’,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김효근의 가곡 ‘눈’, 도종환의 시에 멜로디를 붙여 노랫말을 살린 ‘흔들리며 피는 꽃’,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과의 듀엣곡 ‘첫사랑’ 등 11곡이 수록됐다.

그는 듀엣곡 ‘첫사랑’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첫사랑과 첫눈에 얹힌 추억도 털어놨다.

“대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와 첫눈이 내리면 경복궁에서 무조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배가 고파 밖에 나갔더니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아차 싫어 경복궁에 달려갔는데 남자친구는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가 하도 안 나타나니까 집까지 찾아와 눈을 맞으며 몇 시간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첫사랑, 첫눈의 강렬함과 애틋함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에서 조수미는 전통적인 성악 창법을 가급적 배제하고 가사의 의미가 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리 가곡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 느꼈기에 편곡이 나 창법에서 가까이 두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방황도 했고 어려운 결정도 있었는데, 제 모든 혼과 열정을 쏟아부어 만든 자랑스러운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보에는 음악적으로 난해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곡들을 배제하고, 클래식하면서도 크로스오버의 특징이 강



한 한국 노래들을 담았다고 했다.

해금 등 전통악기부터 재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전자음악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악기 구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줬다. 수록곡들의 작곡 시기는 1980년대부터 올해까지 40여 년에 걸쳐 있고, 대부분 생존 작곡가들의 곡들이다.

조수미는 우리 말로 부른 노래들의 매력을 강조하면

듀엣곡 ‘첫사랑’ 등 11곡 수록

“혼과 열정 쏟아부었다”

서 한국어가 가진 애절하고 관능적이며 다양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어로 노래할 때 사랑의 느낌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성악가로서의 입장이고, 사랑한다는 느낌은 우리 말이 최고지요. 전 세계 성악가들이 우리 가곡 우리 노래를 많이 불렸으면 합니다.”

조수미는 앨범뿐만 아니라 연말 무대에서도 팬들을 만난다.

오는 22일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바리톤 토마스 햄슨과 듀오 콘서트 ‘아트 송즈’를 연다. 조수미는 2부에서 바흐, 드뷔시, 사라사테, 샤브리에 등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신보 수록곡들을 선보이는 ‘조수미&프렌즈 - In LOVE’ 콘서트를 연다. 앨범에 참여한 첼리스트 홍진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해금연주자 해금나리, 최영선 지휘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도 함께 무대에 선다. 조수미는 이 공연의 연주료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다.



“최민식 복귀작·손석구 차기작” ‘카지노’, 연기파 다 모인 디즈니+ 야심작

배우 최민식, 손석구, 이동휘, 허성태 등 연기파 배우와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카지노’로 뭉쳤다.

12월 1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BS)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강윤성 감독과 이동휘, 허성태가 참석했다.

‘카지노’는 돈도 뺑도 없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최민식)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인생의 벼랑 끝 목숨 건 최후의 베팅을 시작하게 되는 강렬한 이야기를 그린다.

‘범죄도시’,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등을 연출한 강윤성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처음 OTT 작품에 도전하게 됐다. 강윤성 감독은 “시리즈 물에서 중요한 건 다음 편을 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업했다”고 영화와의 차이점을 짚었다. 이어 “하루 촬영 분량이 많았다는 점이 영화와 달랐다”고 말했다.

강윤성 감독은 ‘카지노’의 각본도 직접 집필했다. OTT 시리즈물 중에는 웹툰, 웹소설 등 원작 콘텐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직접 오리지널 이야기를 만든 계기는 무엇일까. 강윤성 감독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분을 만났고, 이후 관련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됐다”고 밝혔다.



‘카지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강윤성 감독

무엇보다 ‘카지노’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최민식의 25년 만의 스크린 밖 도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윤성 감독은 ‘카지노’ 이전 함께 영화를 준비하던 인연으로 최민식을 섭외하게 됐다. 그는 “최민식 선배님과 영화 한 편을 준비했는데, 영화 제작이 중단됐다. 그래서 ‘카지노’ 대본을 전달드렸더니 최무식이라는 캐릭터에 매력을 느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민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민식만큼 차무식을 잘 표현할 배우가 대한민국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캐스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함께 출연한 이동휘, 허성태도 최민식과의 호흡에 만족스러워했다.

이동휘는 최민식에 대해 “많은 후배 배우가 함께 작업

하고 싶은 선배 배우”라며 “최애민식”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최민식 선배님은 사랑스러움을 가득 갖고 계시면서 카리스마, 배우로서 귀감이 되는 모습이 있다. 후배로서 따라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또 “첫 신을 찍는데 모니터에 담겨진 선배님의 아우라를 실제 느꼈다. 매일 감탄하며 촬영했다. 정말 최민식 선배님에게 폭 빠졌다”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허성태도 “배우의 길을 걷게 된 시작에 최민식 선배님이 있다”며 애정을 표했다. 그는 “첫 오디션에서 ‘올드보이’ 속 최민식을 연기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내 만나게 됐다. 선배님이 ‘성태야’라고 불려주신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지노’는 오는 21일 시즌1이 공개되고, 시즌2가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다. 강윤성 감독은 “처음부터 시즌1, 2로 기획을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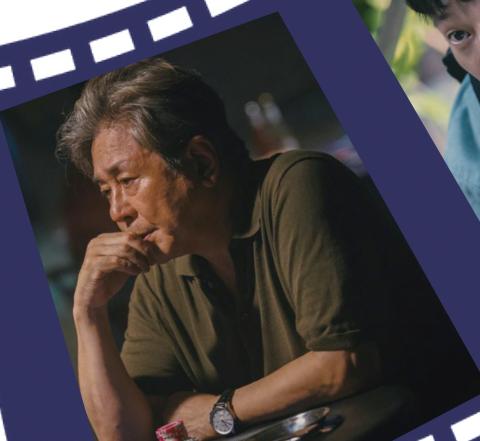
첫 시리즈물 연출을 OTT, 그것도 디즈니+에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윤성 감독은 “영화 쪽에 몸담고 있는 감독으로서 방송 진입이 쉽지 않았다. 또 OTT는 표현 수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도전하

고 싶었다”면서 “대본을 보여줬을 때 디즈니가 흔쾌히 제작을 결정해서 함께하게 됐다”고 답했다.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다. 이동휘는 “카지노’는 최민식 선배님의 멋진 연기 볼 수 있다”면서 “최민식 선배님의 복귀작, ‘구씨’ 손석구의 차기작, 저의 그냥 작이다. 저도 그냥 햄버거, 감자튀김 옆 콜라처럼 나온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강윤성 감독은 ‘카지노’의 리얼리티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진짜 저런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믿을 만큼 리얼리티를 중시했다”며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영부터 이규형까지
‘카지노’로 뭉친 연기파 배우들



김연아, 우아한 '한복' 자태 뉴욕 타임스퀘어 떴다



김연아가 지난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오른쪽은 해당 사진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된 모습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복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됐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은 12월 2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김연아의 한복 영상을 송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9월 프랑스 파리매거진 마리끌레르에 공개된 김연아의 한복 화보를 편집한 것이다. 화보 속 김연아는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백자·노리개 등 다양한 공예품을 활용해 한국 전통의 미를 강조했다.

김연아는 지난 10월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한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김연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진원이 함께 추진한 ‘한복 웨이브’ 사업 일환으로 한복 디자인 개발과 화보 촬영에 참여했다. 한복 기업 10곳이 김연아만의 특성을 살린 한복 60벌을 디자인했다.

한복웨이브 사업은 한복 디자이너들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한복과 장신구를 한 김연아의 화보 영상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진원은 설명했다.

패션계의 유명한 스타일 디렉터인 패트리샤 필드는 김연아 한복 화보 영상에 대해 “독창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한복웨이브 프로젝트를 응원한다”며 “많은 이들이 한복웨이브를 통해 한복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패트리샤 필드는 넷플릭스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미국 드라마 ‘섹스앤파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총괄 스타일 디렉터를 맡았다.



배우 송경철, 10년 슬럼프 고백

“자존심 때문에 홀로 타국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라이브 바를 운영 중인

송경철은 “음악을 하는 후배들이랑 같이

‘음악이나 하면서 놀자’하면서 라이브 카페를 차렸다.

송경철을 대중들은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 출연했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 송경철은 “97년도에 막이 내린 건데

그 작품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 작품을 잊지 못 한다.

KBS에서 남우조연상을 탔다. 1회 때부터 남원역 앞에서

차력하면서 약장수를 했다”라고 회상했다.

또 “97년도부터 머리를 깎았다. 이상하게 감독이나 작가들이

머리 깎은 걸 좋아했다”라며 웃었다.



모든 차력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고 밝힌 송경철은 “직접 배워서 다 하고, 설정상 차력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다 했는데 너무 시청률이 좋아서 차력을 줄였다. 어린 시청자들이 따라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경철은 모든 차력 장면이 기억이 난다며 “솔뚜껑 격파할 때는 손이 그때 고장이 났다. 손바닥 뼈도 상했다. 촬영이 한 번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감독이 ‘한 번 끊어서 가자’고 그랬다. 근데 약이 올랐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하자고 했다. 수십 번 해서 솔뚜껑 손잡이를 절단을 냈다”라고 차력 일화를 공개했다.

차력 캐릭터로 인해 행사를 많이 다녔다는 송강철은 “지방 행사는 돈이 된다”라며 웃었다. 이어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했다. 드라마 할 때는 드라마에 충실히야 하니까 안 했다. 드라마 끝나고도 여운이 길게 갔다”라고 덧붙였다.

송경철은 90년대 원조 몸짱 배우로 유명했던 것에 대

해 “내가 얼굴이 변변치 않다. 그래서 몸으로 승부를 봤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우리 운동할 때는 트레이너 같은 건 없었다. 역기도 콘크리트, 시멘트로 무게 맞춰서 했다”라며 “사실 노력 많이 했다”라고 솔직히 말했다.

지난 5월 29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배우 김영배가 출연했다.

이날 김영배는 ‘서울의 달’에 함께 출연한 배우 송경철과 만났다. 악기를 들고 다닌다는 김영배는 색소폰을 가져왔고, 즉석에서 드럼을 치는 송경철과 근사한 합주를 선보여 이목을 모았다.

합주 뒤에는 이야기를 나눴다. 인연의 시작을 묻자 김영배는 “제가 K본부 출신이고, (선배는) M본부 출신이다. 처음에 만났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하더라. ‘고향은 어디야’ 해서 ‘정읍입니다’ 했더니 ‘그러냐 친근감이 있더라니까’ 하더라”고 친근하게 대해줬던 것을 떠올렸다.



송경철은 “속담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같은 동향이니까 정도 가고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라고. 이에 김영배는 “물에서 태어나신 거다”라며 그가 수상레포츠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김영배는 “수상스키 타다가 한 번 죽을 뻔 했다”고 언급했다.

송경철은 “뉴스에 죽었다고 오보까지 나고 그랬다. 흥터가 남았다. 그래

서 감추려고 안경을 쓴다”고 털어놨다.

또 “견미리 씨 친

인척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다. 일 도우시는 어머니들이 조심스럽게 왔다. 그 분들이 죽은 사람이 왔다고 귀신 아니냐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경철은 수상스키 사고 후 10년의 공백기를 가졌다. 그는 “10년 동안을 내 자신이 초라했다. 더이상 보여줄 게 없다 해서 외국으로 10년 혼자 나가있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 있었어야 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며 “10년 공백기는 그만큼의 후퇴다. 지금 생각하면 견뎠어야 했다. 그땐 내 주위엔 ‘나 뿐이다’ 이랬다. 그건 내 생각이었다”고 지난 일을 후회했다.

이어 송경철은 “지금 두 다리 쌩쌩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나. 연기자는 정년이 없다. 체력 관리만 잘 하면 배역은 오게돼 있다”고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김영배 역시 “많은 일은 안 하더라도 소소하더라도 즐거움 갖고 일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송경철은 “꼭 돈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이 마음이 최고다. 자존심은 쓸모없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끝으로 송경철은 “연기자는 정년이 없다. 힘 당는 데 까지 뽑아만 주면 할 수 있는 게 배우다. 연극이 정말 좋다. 시간 날 때마다 음악 하면서 음악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바다청소 봉사활동…섹소폰 취미”



인천에서 배로 4시간 걸리는 작은 섬 바닷가에서 배우 송경철이 매일 밤 색소폰을 연주한다.

자연 愛 비타민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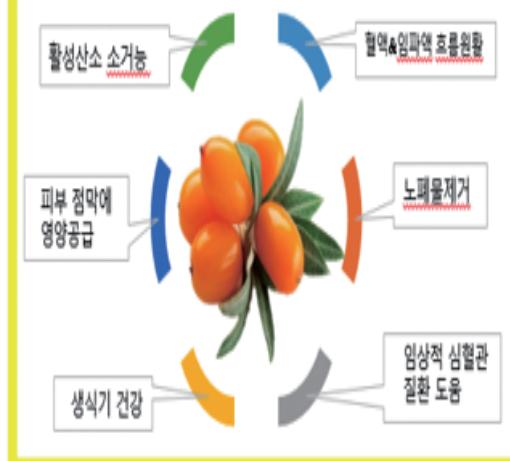
열매의 성분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1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신분
- 2 천연비타민 보충 섭취를 원하시는 분
- 3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
- 4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Palmitoleic acid



비타민 나무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된 비타민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최초의 약전인 <월왕약진>에 수록되어 있는데 비타민나무는 다양한 약리 효능을 보인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나무'라고 불리며 2000년초부터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하여 제품연구와 까다로운 품질을 선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무궁무진한 연구논문과 약리 효능을 입증 받아 채널A, MBN, KBS 등 다양한 방송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구매문의

080-242-8801

미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 목표



(주)그린수소에너지
조동희 회장



(주)그린수소에너지 자원화 Project

친환경 에너지

- 온실가스 절감
- 무공해 에너지 생산
- 탄소 배출권 확보
- 에너지 자원화

정부정책 동참

- 정부 에너지 정책 및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시책 참여
-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린 뉴딜 정책"에 부합
- 차후 관련 정책에 있어 선점 및 투자효과

신규 수익원 창출

- 발전 수익의 폐자원 활용을 통한 정부 지원금 창출
-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익 확보
- 해외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

Syn Gas Turbine 발전사업 (기대효과)

- 투자 부진의 지속으로 경제 활력 감소
- 고용창출 저하로 인한 일자리 부족
- Syn Gas Turbine 발전소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기대

신규 일자리 창출

화순 Syngas Turbine 발전 설비



(주) 그린수소에너지

THE GREEN HYDROGEN ENERGY CO.LTD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60, 403호(영락빌딩)
■ 전화 : 031)221-3345 ■ 팩스 : 031)243-3345 ■ E-mail : huij0334@daum.net